

다산학 39호 (2021.12) | 007~064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2) — 「백언시百諺詩」와 「아언지하雅言指瑕」를 중심으로

윤석호 |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목차

1. 서론
2. 「백언시百諺詩」 이본들 및 『이담속찬耳談續纂』[조선속담]의 비교
3. 「아언지하雅言指瑕」 이본들 및 『아언각비雅言覺非』의 비교
4. 결론

1. 서론

『고금비언古今鄙諺』은 강진군 다산박물관에서 2020년에 입수한 자료이다.¹⁾ 3편이 묶여 1책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속담을 담은 「고금비언古今鄙諺」, 조선속담을 담은 「백언시百諺詩」, 우리말의 문자적 오류를 담은 「아언지하雅言指瑕」의 순서이다. 다만 표지에 책제를 비롯한 아무런 표기가 식별되지 않으므로, 첫 번째의 편명을 따서 ‘古今鄙諺’이라 부르기로 한다.

「고금비언」·「백언시」·「아언지하」는 모두 이본이 현전하는 다산의 저작이다.²⁾ 또한 『고금비언』 전체에는 다산 가장본의 특징 및 다산 수고본의 수정 양상이 확인된다.³⁾ 이로써 보건대 『고금비언』은 다산의 저술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담속찬耳談續纂』과 『아언각비雅言覺非』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어학 연구 경과를 해명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자료이다.

* 본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A02089018)

- 1) 강진군의 다산박물관은 해마다 다산학과 실학, 지역학의 자료를 구입해오고 있다. 『고금비언』은 2020년도의 유물 구입 사업을 통해 입수되었다.
- 2) 동일한 편명의 이본으로 한정한다면 「백언시」와 「아언지하」의 경우 각각 3종이 현전하나, 「고금비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본이 확인된 바가 없었다. 그런데 역시 다산의 저작인 『이담속찬耳談續纂』과 『아언각비雅言覺非』가 내용상 각각 「고금비언」·「백언시」, 그리고 「아언지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까지를 이본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고금비언』 3편과의 비교 대상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 3)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의 분석(1) - 「고금비언」을 중심으로」, 『다산학』 36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1. 논문에서는 『고금비언』이 다산 가장본의 서지적 특징을 띠고 있으며, 그 전체에서 다산 수고본에서의 수정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또한 「고금비언」이 초당으로 이거하기 전에 생산되었거나 그러한 저본 하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고금비언」 저술 당시 다산은 ‘경사속담’만을 채록하여 110수를 여기에 실었고, 이후 왕동계의 『이담유증』 및 여타 저술을 참고하여 그간 수집하지 않았던 ‘중국 민간속담’을 채록했으며, 그 결과물을 신작에게 보내어 누락된 속담의 증보를 요청했음을 논증했다. 아울러 이로써 받은 ‘10여수’의 범위를 「고금비언」과 『이담유증』에는 없으나 『이담속찬』(중국속담)에는 실린 16수로 한정했다.

그 특징은 3편을 각각의 이본들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해명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선행의 연구에서 『고금비언』 전체의 서지적 특징, 그리고 『고금비언』의 첫째 편인 「고금비언」을 『이담속찬』[중국속담]과 비교하며 분석한 바 있다.⁴⁾ 본고는 그 후속 연구로, 전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고금비언』 「백언시」 및 「아언지하」의 내용과 특징을 그 이본들과의⁵⁾ 비교를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2. 「백언시百諺詩」 이본들 및 『이담속찬耳談續纂』[조선속담]의 비교

1) 판본별 특징 및 속담 개수

조선속담을 한역 및 주해한 다산의 저술에는 2개의 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백언시百諺詩」이다. 『고금비언古今鄙諺』이 발굴됨으로써 동명의 이본은 모두 4종이 되었는데, ①장서각 소장 『여유당집與猶堂集』에 실린 「백언시」(백언시A), ②신안군 소장 『운곡잡저雲谷雜稿』에 부속된 「백언시」(백언시B), ③『고금비언』에 수록된 「백언시」(백언시C), ④연세대 소장 『청관총서靑館叢書』에 부속된 「백언시」(백언시D)이다. 다른 하나는 『이담속찬』으로, 조선속담에 해당하는 「백언시」와 중국속담에 해당하는 「고금비언」을 하나로 묶고 증보한 것이다. 여러 이본들이 있지만, 장

4) 윤석호, 앞의 글, 2021.

5) 「백언시」와 「아언지하」의 이본을 비롯해 본고에서 비교대상으로 활용된 자료의 특징과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본문의 해당 장에서 소개되어 있다.

서각 소장본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⁶⁾

본고에서는 이상의 5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각각의 기본적인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백언시A (『여유당집』, 장서각)	백언시B (『운곡잡저』)	백언시C (『고금비언』, 다산박물관)	백언시D (『청관총서』, 연세대)	『이담속찬』 (조선속담) (‘손암소집’ 제외)
형태	4침안정	4침안정	4침안정	미상	4침안정
	四周雙邊, 有界	四周雙邊, 有界	四周雙邊, 有界	四周雙邊, 有界	四周雙邊, 有界
	[확인] 8행 [추정] 10행	10행	10행	12행	10행
편명	百諺詩	百諺詩	百諺詩	百諺詩	無 [첫 행에 ‘以下東諺’ 이라고 표기]
서문	有	有	無	無	有
저자 표기	無	洌水 丁鏞 著	鐸翁 著	洌水 丁鏞 著	水 丁鏞 著
속담 개수	[확인] 99수 [추정] 124수 ~127수	150수	156수	155수	154수

[표 1] 「백언시」 4종 및 『이담속찬』(조선속담)의 서지 정보

먼저 형태를 보자. 백언시A, 백언시B, 백언시C, 『이담속찬』(조선속담)은 사침안정법으로 묶였으며, 내지는 사주쌍변에 10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언시A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육안으로 보이기에 행수가 8행인데, 자세히 보면 면마다 모든 면에서 동일한 면적이 잘려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필자는 그 분량을 2행으

6) 임미정, 『이담속찬 연구』, 보고사, 2017.

로 추정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백언시A 역시 10행이 된다. 이상은 다산 가장본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형태적 특징이자, 이들 필사본이 가장본 계열임을 추정케 하는 근거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백언시D는 12행에 다 계선 또한 없으므로, 위의 4종과는 다른 계열의 필사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서문이다. 5종 중에서 서문이 실린 것은 백언시A와 백언시B, 그리고 『이담속찬』(조선속담)이다. 그런데 『사암선생연보 侯菴先生年譜』의 1801년 조를 보면, 그해 여름 장기에서 「백언시」를 저술했다는 기록과 함께 그 서문이 실려 있다. 이로써 『이담속찬』의 서문을 포함해 「백언시」의 서문은 총 4종이 되는데, 동일 저술에 대한 서문임에도 그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 본고는 그 차이가 「백언시」의 저술 과정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다소 길지만 이들 모두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백언시」A 서문: 꼴을 베고 나무를 하는 사람들의 말도 성인은 택 하셨으니, 여향의 비루하고 속된 말도 때로 우연히 이치에 맞을 경우에는 군자가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 성호선생께서 우리나라 속담을 모으셨는데, 모두 백여 구였다. 문장의 이치는 비록 밝았으나, 다만 운율을 맞추지 않아 옛 속담과 다른 점이 있었다. 신유년(1801년) 여름에 내가 장기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할 일이 없었는데[無事], 이때에[於時] 성호선생께서 만들어 엮은[作綴] 것을 운어韻語가 이루어지도록 바로잡아[櫟栝] 이것을 ‘百諺詩’라 이름 하였다.⁷⁾

7) 『與猶堂集』(장서각, 안춘근 구장본), 「百諺詩」, “芻蕘之言, 聖人擇焉, 閭巷鄙俚, 時寓至理, 君子所不敢忽也. 昔星湖先生集東方里諺, 共百餘句. 詞理雖炳, 顧不叶韻, 有殊古諺也. 辛

『사암선생연보』의 「백언시」 서문: 풀을 베고 나무를 하는 사람들의 말도 성인은 택하셨으니, 여항의 비루하고 속된 말도 때로 우연히 이치에 맞을 경우에는 군자가 감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 성호선생께서 우리나라 속담을 모으셨는데, 모두 백여구였다. 문장의 이치는 비록 밝았으나, 다만 운율을 맞추지 않아 옛 속담과 다른 점이 있었다. 신유년(1801년) 여름에 내가 **장기에 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할 일이 적어[少事] 성호선생께서 엮은[綴] 것을 운어韻語가 이루어지도록 바로잡아[鑒]** 이것을 ‘百諺詩’라 이름 하였다.⁸⁾

「백언시」B 서문: 지난날 성옹께서 언어를 한문으로 옮겨 四言으로 문장을 만드셨다. 다만 옛적에는 비록 비루한 상말이라 하더라도 韻語를 이루었으니, 마치 晏子が 하나라의 상말을 인용하면서 ‘遊休豫助’라 하여 叶韻을 이룬 데에서부터, 후에 ‘寧爲鷄口 毋爲牛後’같은 것이라든지 ‘潁水清 灌氏橫’, ‘爛羊胃 騎都尉’ 같은 것들처럼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런데 성옹이 옮겨놓은 것은 운어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내가 늘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귀양살이를 하면서 할 일이 없어 매양 언어諺語 하나를 생각하여 운어韻語를 이루고 모아서 ‘百諺詩’라 이름하였다.** 글월을 쓰면서 인용

西夏余在長髻, 謫居無事, 於時榮枯星翁之作綴之爲韻語, 斯之謂「百諺詩」也.”

- 8) 『俟菴先生年譜』(규장각, 古4650-167) 권2, 辛酉年條, “夏「百諺詩」成. 按敍曰 芻蕘之言, 聖人擇焉. 閭巷鄙俚, 時寓至理, 君子所不敢忽也. 昔星湖先生集東方里諺, 共百餘句. 詞理雖炳, 顧不叶韻, 有殊古諺也. 辛酉夏余在長髻, 謫居少事, 榮星翁之綴之爲韻語, 斯之謂「百諺詩」也.”

하더라도, 아마 옛 법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⁹⁾

『이담속찬』 서문: 왕씨王氏의 『이담耳談』은 고금古今의 속담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경서經書와 사서史書에 쓰여 있음에도 빠진 것이 꽤 있어서 지금 다시 수록한다. 또한 승지 석천 신작이 십여수를 채록하여 도와주었다. 이로 인하여 보니, 성호 이익 선생의 『백언해百諺解』는 우리나라의 속담인데 모두 운을 맞추지 않았다. 이에 운을 붙일 만한 것을 골라서 운을 붙이고 빠진 것을 수록하였다. 또한 둘째 형님이 흑산도에 계실 때 수십 장을 수집하여 부쳐 주셨다. 지금 모두 합하고 편집하여, 이름을 『耳談續纂』이라 한다.¹⁰⁾

4종의 서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백언시」의 저술 동기와 대상이 이익의 『백언해』와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장기長鬚 유배기에서 착수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백언시A의 서문과 『사암선생연보』에 수록된 「백언시」 서문의 경우, 양자의 자구가 거의 같다. 차이라고 한다면 밑줄 친 부분 정도인데, 『사암선생연보』에서의 표현이 좀 더 간명하고 순화되었음을 확인된다.

한편 이들 둘에 비할 때 백언시B의 서문에는 두 가지의 주목되는 차

9) 『雲谷雜著』 권1, 「百諺詩」, 〈序文〉. “昔星翁譯諺語, 以四言爲文. 第古者雖鄙諺, 皆成韻語, 如晏子引夏諺, 遊休豫助自諧叶, 後如寧爲鷄口, 毋爲牛後, 潁水清灌氏橫, 爛羊胃騎都尉之類, 莫不皆然. 而星翁所譯, 不成韻語, 余常恨之. 謫居無事, 每想一諺語, 輒成韻語, 名之曰百諺詩, 庶臨文引用, 不倍古法也.”

10) 『耳談續纂』(『定本』 제5책, 151쪽). “王氏『耳談』者, 古今鄙諺之萃也. 經史所著, 頗有脫漏, 今復收錄, 石泉 申承旨【綽】亦以十餘語採而助之. 因念星翁《百諺》, 卽吾東鄙諺, 而皆不叶韻, 今取可韻者韻之, 因又收其脫漏, 先仲氏在茲山海中, 亦以數十語寄之, 今會通爲編, 名之曰『耳談續纂』. 嘉慶庚辰春, 鐵馬山樵書.”

이가 있다. 하나는 「백언시」 저술의 시공이 ‘장기長鬚’에서 ‘유배기[謫居]’로, 다른 하나는 연구의 대상이 ‘이익의 『백언해』’에서 ‘매양 생각하는 언어[每想一諺語]’로 바뀐 것이다. 이는 장기에서 시작된 「백언시」의 저술이 강진으로 적소를 옮긴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가 비단 『백언해』 뿐만 아니라 그것에 실리지 않은 속담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은 『이담속찬』의 서문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이담속찬』은 조선속담과 중국속담을 묶어서 해배 이후에 만든 책인데, 두 계열의 속담은 이미 유배기 동안 각각 상이한 과정으로 수집되고 있었다. 즉 조선속담의 경우 이익이 쓴 『백언해』의 속담에 운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그것에 실리지 않은 속담을 직접 수집했고, 아울러 흑산도에 있던 손암으로부터 수십 장의 속담을 받았다. 또한 중국속담의 경우에는 왕동궤의 『이담』을 참조했으나, 역시 그것에 실리지 않은 경사經史를 직접 채록했고, 아울러 해배 이후 신작申緯으로부터 십여 장의 속담을 받기도 했다. 요컨대 다산의 속담 연구는 장기에서 착수된 이래로 유배기를 거쳐 해배 직후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조선속담과 중국속담이 각각의 경로로 수집 및 정리되어 왔으며, 1820년에는 이들이 합쳐서 『이담속찬』이라는 책으로 수렴 및 종합되었던 것이다.

이상을 근거로 4종의 서문이 작성된 시기 및 선후 관계도 가늠해볼 수 있겠다. 먼저 백언시A와 그 서문은 장기에서 작성되었다. 그리고 『사암선생연보』에서의 서문은 해배 이후의 언젠가에 백언시A의 서문 [혹은 이것과 같은 단계에 생산된 다른 필사본]을 약간 손질하여 옮겨 적은 것이다. 한편 백언시B는 이강희가 스승의 「백언시」를 흑산도에서 필사한 것이므로, 입도 및 필사의 시점은 다산 해배 이후가 된다. 그런데 그



(그림 1) 백언시A가 속한 책의 표지



(그림 2) 백언시A의 첫째 면(그림의 왼쪽 면)

저본의 생산 시점은 다산의 강진 유배기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전사했을 백언시B와 그 서문은 강진 유배기의 어느 시점에 생산된 백언시의 양상을 담고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담속찬』과 그 서문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1820년에 저술되었다.

다음으로 저자 표기방식이다. 표기가 있는 4종 중에서 백언시C를 제외하고는 모두 ‘洌水 丁鏞 著’인데, 이는 다산이 전 생애에 걸쳐 즐겨 썼던 표기방식이다. 한편 백언시C에서의 저자는 ‘籟翁 著’로 되어 있다. 이는 강진에서의 다산이 초당으로 이거하기 전에 즐겨 썼던 호이므로, 백언시C(혹은 그 저본)의 생산 시점 역시 이때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속담의 개수이다. 먼저 백언시A에는 14면에 걸쳐 99수의 속담이 확인되는데, 첫째 면에는 3수가, 둘째 면부터 마지막인 열셋째 면까지는 8수씩이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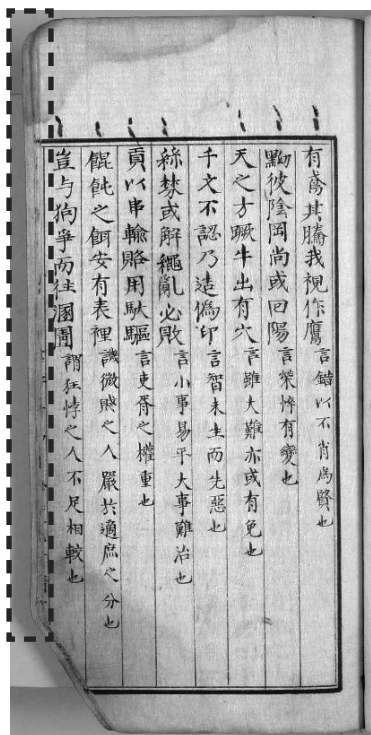
그런데 [그림 1]과 [그림 2]의 점선에서 보이듯, 백언시A의 모든 면에는 비슷한 면적이 잘려나가 있다. 또한 해당 책의 그렇지 않은 부분과 비교해보면, 그 분량이 모두 2행으로 같음도 확인된다.¹¹⁾ 다산은 수집한 대부분의 속담을 4언 2구의 형식으로 만들었고, 이 경우 예외 없이 하나의 속담을 하나의 행에 써넣었다. 또한 육안상 백언시A에서 확인되는 모든 속담은 4언 2구의 형식이므로, 잘려나간 속담의 형식도 이와 같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로써 잘려나간 속담의 개수를 추산해볼 수 있겠다. 먼저 첫째 면부터 열두째 면까지는 빈 행이 없이 내용이 이어지므로, 모든 면마다 2수씩 총 24수의 속담이 잘려나간 것이 된다. 문제는 열셋째 면과 열넷째 면인데, 이 둘은 백언시A 마지막 장의 앞면과 뒷면이기도 하다. 만약 열넷째 면에 있어 그 잘려나간 부분의 바로 다음 행에 속담이 쓰여 있었다면, 두 면에서도 각각 2개씩 모두 4개의 속담이 잘려나간 것이 된다. 이곳에서의 본문 또한 빈 행이 없이 채워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잘린 부분 뒤로 아무런 속담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자료의 현재 상황으로는 백언시A의 본문이 종결된 지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잘려나간 속담의 수, 그리고 훼손 전에 실려 있던 전체 속담의 수 또한 백언시A가 종결되었을 여러 지점에 따라 달리 추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전에 열셋째 면과 열넷째 면의 잘린 지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잘려나간 행에서의 글씨 흔적이 남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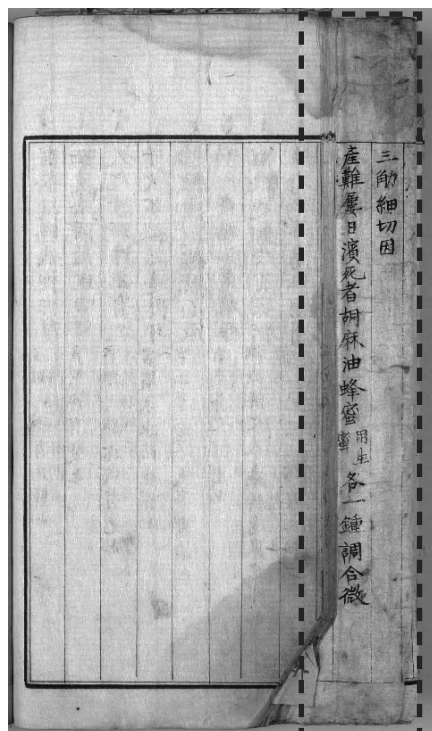
먼저 열셋째 면의 왼쪽 끝부분을 보면[그림 3], 8행과 9행 사이의 계

11) 잘려나간 분량이 2행인 것은 속담의 구성을 근거로도 논증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장의 2절[속담의 순서와 자구]에 상술해 놓았다.



(그림 3)

백언시A 13면 및 9행 글씨 흔적(점선)



(그림 4)

백언시A 14면 및 잘린 부분(점선)

선 및 9행에 쓰인 글자의 일부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는 위치상 9행 속담의 주해 부분에 해당한다. 소자小字로 병행하여 기입된 주해의 경우, 그 글자가 행의 공간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더러는 이웃 행으로 넘어가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써 13면의 9행에 속담이 쓰였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다음으로 열넷째 면을 보면(그림 4), 2행과 3행 사이의 계선은 보이지만, 2행 내부에 쓰인 글자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로써 2행에 속담이 쓰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해가 아닌 속담의 경우 글자 좌우의 여백이 꽤 있을 수 있으며, 비

록 한차례에 불과하지만 주해없이 속담만 써놓은 사례가¹²⁾ 백언시A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통해 백언시A의 최소 속담수는 124수가 되었다.¹³⁾ 그런데 여기에 다시 추가될 수 있는 속담이 있는데, 그 수는 백언시A의 여러 종결 가능한 지점에 따라 달라진다. 모두 3가지의 경우로 ①13면 10행, ②14면 1행, ③14면 2행이며, 이때 추가될 수 있는 속담 수는 ①1개, ②2개, ③3개가 된다. 그리고 이상을 결합하면 훼손되기 전 백언시A가 실었던 속담의 수는 최소 124개, 최대로는 127개로 추산될 수 있다.

나머지 판본들에는 훼손이나 낙장의 흔적이 없으며, 속담의 수는 각각 150수[백언시B], 155수[백언시C], 156수[백언시D], 154수[『이담속찬』]로 확인된다. 다만 『이담속찬』의 경우에는 속담의 구성에 대한 추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백언시」가 조선속담만을 담은 독립된 저술인 것과 달리, 『이담속찬』에는 형식적인 구분이 없이 중국속담에 이어서 조선속담이 실려 있다. 그 개수는 모두 214수인데, 배열이 이채롭다. 먼저 ‘以下 東謠’이라는 소제목 하에 4언 2구 형식의 속담 150수가 실렸고, 뒤이어 ‘以下 巽庵所輯’이라고 쓴 소제목 하에 60수가 실렸다. 그리고 그 뒤로 별행으로 ‘以上二百十張【巽庵所輯六十張】’이라는 소제목이 쓰였고, 이어서 4언 2구와는 다른 형식의 속담 4수가 덧붙여 있다.

5종 중에서 손암이 수집해준 속담[손암소집巽庵所輯]은 오직 『이담속찬』[조선속담]에만 실려 있다. 따라서 「백언시」 4종 모두는 손암이 속담을 수집해주기 이전에 생성되었거나 혹은 이를 저본으로 한 필사본이 된다.

12) 87번째 속담인 “善攀者落 善涸者溺”가 이에 해당한다.

13) 먼저 자료상에서 확인되는 속담이 99수이다. 다음으로 애초 쓰였으나 잘려나간 것으로 확인된 속담이 25수인데, 첫째 면에서 열둘째 면까지의 24수[면마다 2수], 그리고 13면 9행에의 1수이다.

참고로 손암은 1816년 음력 6월 6일 우이도牛耳島에서 생을 마쳤다.

2) 속담의 순서와 자구

5종에 실린 전체 속담의 면면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백언시C의 속담 배열을 '기준순서'로 했으며, 나머지 저작의 속담 배열은 '본래 순서'에 표기함.

※ 『이담속찬』[조선속담]과 비교해 상이한 자구를 드러냈고, 같은 자구는 '-'로, 생략된 자구는 '()'로 표기함.

백언시A (장서각본 『여유당집』)		백언시B (『운곡잡저』)		백언시C (『고금비언』)		백언시D (『청관총서』)		『이담속찬』 (조선속담) (장서각본)	
본래 순서	속담	본래 순서	속담	기준 순서	속담	본래 순서	속담	본래 순서	속담
2	----不汝	1	----不汝	1	----不汝	1	----不汝	30	咎在我瞽 溝汝何怒
3	----覆	2	----覆	2	----覆	2	----覆	31	匪爾牛角 我牆何崩
		3	-----	3	-----	3	-----	32	我跂適涸 賓又辭臚
1	-----	4	-----	4	-----	4	-----	8	烏之方飛 有隕其梨
		5	-----	5	-----	5	-----	33	盜冤竟雪 淫誣難滅
		6	-----	6	-----	6	-----	34	我厭其餐 予狗則慳
		7	水灌厥鬲 -注-足	7	水灌厥鬲 -注-足	7	水灌厥鬲 -注-足	20	灌頂之水 必流于趾
4	----告---	8	----告---	8	----告---	8	----告---	21	語牛則滅 語妻則洩
5	-----	9	-----	9	-----	9	-----	22	晝言雀聽 夜言鼠聆

13	-----	10	萬畦一醜 -----	10	萬畦一醜 -----	10	萬畦一醜 -----	23	一污萬國 終疑此狗
6	-----	11	-----	11	-----	11	-----	24	十斫之木 罔不顛覆
7	-----	12	-----	12	-----	12	-----	25	蔬之將善 兩葉可辨
		13	-----	13	-----	13	-----	26	鹽所不醃 豈畏歧鹹
8	-----	14	-----	14	-----	14	-----	1	三歲之習 至于八十
9	-----	15	-----	15	-----	15	-----	2	鳩生一年 飛不踰巔
10	---- -畏虎口	16	---- -畏虎口	16	---- -畏虎口	16	---- -畏虎口	3	一日之狗 不知畏虎
11	---- 踰 門	17	---- 踰 門	17	---- 踰 門	17	---- 踰 弄	27	孩兒之言 宜納耳門
12	-----	18	--畏----	18	-----	18	--○----	28	爪芒思擢 心蛆罔覺
14	--殘----	19	--殘----	19	--殘----	19	--殘----	29	由酒一盞 或淚厥眼
15	弟求莫應 盜 有剩	20	弟求莫應 盜 有剩	20	弟求莫應 盜 有剩	20	弟求莫應 盜 有剩	35	無贈弟物 有贈盜物
		21	-手其闊 春湧其滑	21	-手其闊 春湧其滑	21	-手其闊 春湧其滑	36	婦子手闊 譬彼春湧
16	-----	22	-----	22	-----	22	-----	37	頰批鍾路 眼睨水庫
17	-----	23	-----	23	-----	23	尾狗-----	4	狗尾三基 不成貂皮
18	-----	24	-----	24	-----	24	-----	38	妻毆雖弄 恒受則痛
19	-----	25	-----	25	-----	25	-----	39	歌曲雖豔 恒聽斯厭
		26	-----	26	-----	26	-----	40	彼苦者梨 尚或味之
		27	-----	27	-----	27	-----	41	既乘其馬 又思牽者
		28	--滋----	28	--滋----	28	--滋----	42	我腹既飽 不察奴飢
		29	-----戚	29	-----戚	29	-----戚	43	十指徧鰓 疇不予感

		30	-----	30	-----	30	-----	44	我歌將放 婚家先唱
20	-----	31	-----	31	-----	31	-----	45	始用升授 酒以斗受
		32	淒彼稂屨 皖此--	32	淒彼稂 皖此--	32	淒彼稂 皖此--	46	眠此藁屨 安有菊約
21	母曰--	33	母曰--	33	母曰--	33	母曰--	47	緩驅緩驅 牡牛之步
22	-----	34	-----	34	-----	34	-----	48	婦無可短 踵如雞卵
		35	會不反隅	35	會不反隅	35	會不反隅	49	婦老爲姑 靡不效尤
23	-----	36	-----	36	-----	36	-----	50	唯筭無藏 是以錦裳
24	-----	37	-----	37	欲--	37	-----	51	索綯爲罟 尙或捕虎
25	-----	38	咬--	38	-----	38	-----	52	予所畜犬 迺噬我膺
26	-----	39	-----	39	-----	39	-----	53	窳苟不燃 揆豈生煙
27	-----	40	-----	40	-----	40	-----	54	曉月之觀 豈自昏候
		41	-----	41	-----	41	-----	55	膚爛之救 吾先兒後
28	針--	42	-----	42	-----	42	-----	56	竊鍼不休 終必竊牛
29	-----	43	言甘--	43	-----	43	-----	57	甘言之家 豉味不嘉
30	-----	44	-----	44	-----	44	-----	58	厥勣太績 終受一踐
31	-----	45	-----	45	-----	45	-----	59	鷄效鶴步 載裂厥脰
32	-----	46	-----	46	-----	46	-----	60	積功之塔 終古不塌
33	-----	47	-----	47	-----	47	-----	61	投石石來 擲餅餅回
34	-----	48	-----	48	-----	48	-----	62	蕎餅賽祖 安用二鼓
35	-----	49	-----	49	-----	49	-----	63	瑟人蹲蹲 荷校隨欣

		50	-----	50	-----	50	-----	64	升粟之匱 嗜此尺餌
		51	-----	51	-----	51	-----	65	農夫餓死 枕厥種子
		52	--之戰 --在前	52	--之戰 --在前	52	--之戰 --在前	212	鯨鬪鯢死
		53	----班貓--	53	----班貓--	53	----班貓--	66	靈龜之脊 草蜥載螫
		54	--在----	54	--在----	54	--在----	67	諸狗趁後 必顧瘋狗
36	-----	55	-----	55	-----	55	-----	68	相彼蚯蚓 踐之則蠹
		56	-----	56	-----	56	--委 委羽	69	鳥之所止 有羽其委
37	-----	57	-----	57	-----	57	-----	16	植松求亭 人壽幾齡
38	---- 匪拌不-	58	---- 匪拌不-	58	---- 匪拌不-	58	---- 匪拌不-	17	在灶之鹽 揣之乃鹹
		59	-----	59	-----	59	-----	70	山下卜宅 春杵難獲
39	-----	60	-----	60	-----	60	-----	7	蟹子雖纖 螯已知箝
40	疾噉求缺 ----	61	疾噉求缺 ----	61	疾噉求缺 ----	61	疾噉求缺 ----	71	饕饕之食 必咽其噪
41	--進餌 以--	62	--進餌 以--	62	--進餌 以--	62	--進餌 以--	72	些些之食 可放纖矢
42	-----	63	-----	63	-----	63	-----	18	百家之里 必有悖子
43	--體製 --貌制	64	--體製 --貌揭	64	--體製 --貌揭	64	--體製 --貌揭	73	衣視其體 名視其貌
44	-----	65	-----	65	-----	65	-----	74	先視爾褥 乃展厥足
45	--瘼 ----	66	--瘼 ----	66	--瘼 ----	66	羣-瘼 -羣-	75	聞則是病 不聞是藥
46	-----	67	----何-	67	-----	67	-----	76	雖臥馬糞 此生可願
47	-----	68	-----	68	-----	68	-----	77	戲矚之甕 風必來中
48	-----	69	-----	69	-----	69	-----	19	欲制細君 須及紅裙

49	----孰--	70	----孰--	70	----孰--	70	----孰--	78	諱伴出根 不算其糧
		71	----孰--	71	----孰--	71	----孰--	79	暗中眊目 誰應約束
50	-----	72	-----	72	-----	72	-----	80	終夜馳奔 不入其門
51	-----	74	-----	73	-----	74	-----	82	勿見三公 護我一躬
		73	-----	74	-----	73	-----	81	啖梨之美 兼以濯齒
		75	-----	75	-----	75	-----	83	襤褸襤褸 猶然錦綉
		76	-----	76	-----	76	----絲--	84	雖有忙心 線不繫鍼
		77	--匆匆 ---春	77	--匆匆 ---春	77	--匆匆 ---春	85	緣我事急 野確先踣
		78	-----	78	-----	78	-----	86	我刀他鞘 既插難掉
52	-----	79	--谷上----	79	-----	79	-----	87	留子之谷 虎亦顧復
		80	執戔之臂 終向內施	80	執戔之臂 終向內施	80	執戔之臂 終向內施		
53	-----	81	-----	81	-----	81	-----	88	西瓜外舐 不識內美
		82	囹圄吞椒 其辣不昭	82	囹圄吞椒 其辣不昭	82	囹圄吞椒 其辣不昭	149	全椒不末 吞不知辣
54	-----	83	-----	83	-----	83	-----	89	替非不替 謂替則怒
55	-----	84	----酬--	84	-----	84	-----	90	狗貸虎狼 豈望報償
		85	獨監豉麴 難節嗜慾	85	獨監豉麴 難節嗜慾	85	獨監豉麴 難節嗜慾	150	莫以狗子 監此麴豉
56	-----	86	-----	86	-----	86	-----	91	五月炙火 猶惜退坐
57	-----	87	-----	87	-----	87	-----	92	巫不自祈 替昧終期
58	-----	88	-----	88	-----	88	-----	9	可憎之犬 鼻不離齧
59	-----	89	-----	89	-----	89	-----	10	窮人之事 翻亦破鼻

60	-----	90	-----	90	-----	90	-----	6	鳶踰三紀 乃獲一雉
		91	黨胥話 -----	91	黨胥話 -----	91	黨胥話 -----	93	宗族之鬪 不異狗鬪
61	-----	92	-----	92	-----	92	-----	94	未有涉川 而後乘船
62	之將躍 亦縮厥脚	93	蠹之將躍 亦縮厥脚	93	蠹之將躍 亦縮厥脚	93	蠹之將躍 亦縮厥脚	95	蛙惟踣矣 乃能躍矣
		94	犛狗沐浴 終岡刮目	94	犛狗沐浴 終岡刮目	94	犛狗沐浴 終岡刮目	96	烏狗之浴 不變其黑
63	-----	95	-----	95	-----	95	-----	97	盲人之睡 如寤如寐
64	-----嫵	96	-----嫵	96	-----嫵	96	-----嫵	5	烏聲十二 無一斌媚
65	無妬-----	97	無妬-----	97	無妬-----	97	無妬-----	98	雖曰無猜 喜觀鄰災
66	-----	98	-----	98	-----	98	-----	99	半菽孔碩 他人所獲
67	-----	99	-----亦--	99	-----	99	-----	100	難升之木 無然仰矚
		100	躍-----	100	-----	100	-----	101	經夜無怨 歷日無恩
		101	----- -----	101	----- -----	101	----- -----	214	寧測十丈 水深 難 測一丈人 心
		102	-----	102	-----	102	-----	102	渠所習狃 不以予狗
		103	-----	103	-----	103	-----	11	人飢三日 無計不出
		104	-----	104	-----	104	-----	12	爾逢爾仇 獨木橋頭
68	-----	105	-----	105	-----	105	-----	103	儲傳愈減 言傳愈濫
69	-----度--	106	-----度 季	106	-----度--	106	-----度--	13	竿頭苟延 或至三年
70	-----	107	-----	107	-----	107	-----	104	瞬目不亟 或喪厥鼻
71	-----	108	-----	108	-----	108	-----	14	舌下有斯 人用自戕

		109	權	109		109		15	由惜一瓦 樑摧大厦
72		110	先	110	先	110	先	105	盜之就拏 厥足自麻
73	弗	111	弗握	111	弗握	111	前 勿後握	106	盜以後捉 不以前捉
74		112		112		112		107	飢無可慳 疋錦一餐
75	繡鞭何須	113	繡鞭奚須	113	繡鞭奚須	113	繡鞭奚須	108	赤僕之驅 難佩繡葫
76		114	必	114	必	114	必	109	善往之願 反受雷震
77	易素	115	易素	115	易素	115	易素	110	宰牛無贓 剝栗難藏
78		116		116		116		111	行潦之聚 亦于硬土
79		117		117		117		112	牛耳誦經 何能諦聽
80		118		118		118		113	馴馬所載 難任蚤背
81	喪馬葺廐 既往何救	119	喪馬葺廐 既往何救	119	喪馬葺廐 既往何救	119	喪馬葺廐 既往何救	117	既喪其馬 乃葺廐
82	奇	120	奇	120		120		114	視彼徒者 見我騎馬
		121	梨柿何擅	121	梨柿何擅	121	梨柿何擅	118	他人之宴 曰梨曰柿
83		122		122		122		115	虎之力睡 莫觸其鼻
		123	致虎 致怒	123	致虎 致怒	123	致虎 致怒	116	談虎虎至 談人人至
		124		124		124		119	我所珍皮 竟歸人尿
		125		125		125		120	豈有溝瀆 可棄奴僕
		126	栢楊所莅 遂無將師	126	栢楊所莅 遂無將師	126	栢楊所莅 遂無將師	211	惟杖無將
		127		127		127		121	數春之白 尙或納手
		128		128		128			

84	-----	129	-----	129	-----	129	-----	122	妻妾之戰 石佛反面
85	-兒雖蒙 所愛惟從	130	-兒雖蒙 所愛惟從	130	-兒雖蒙 所愛惟從	130	-兒雖蒙 所愛惟從	124	孩誰向背 趨其所愛
		131	-攘厥雞 心目俱迷	131	-攘厥雞 心目俱迷	131	-攘厥雞 心目俱迷	123	瞽者嗜鶩 自攘厥雞
		132	-----	132	-----	132	-----	125	餅固餅矣 盒兮尤美
		133	駒蠶之垂 ---知	133	駒蠶之垂 ---知	133	駒蠶之垂 -左-知	126	駒之方蠶 左右難占
		134	---官 悄悅不安	134	---官 悄悅不安	134	---官 悄悅不安	127	村雞入縣 厥目先眩
86	-----	135	-----	135	-----	135	-----	128	特爲良材 乃發微苔
		136	-置- ----	136	-置- ----	136	-置- ----	129	貧家之關 天子其憂
87	-----	137	-----	137	-----	137	-----	130	善攀者落 善涸者溺
		138	-----	138	-----			131	發怒蹴石 我足其坼
88	-----	139	-----	139	-----	138	-----	132	羹之方沸 罔知厥味
89	-----	140	-----	140	-----	139	-----	133	釜底鐫底 煤不胥詆
90	-----	141	-----	141	-----	140	-----	134	活人之噪 蛛不布網
91	-----	142	-----	142	-----	141	-----	135	綠雖異織 終是一色
		143	---- 乃能孝矣	143	---- 乃能孝矣	142	-渺- -能孝矣	136	彼眇者子 乃孝厥妣
92	-----	144	-----	144	-----	143	-----	137	有薦其騰 我視作鷹
93	黝- ----	145	黝- ----	145	黝- ----	144	黝- ----	138	冽彼陰岡 尙或回陽
94	-----	146	-----	146	-----	145	-----	139	天之方蹶 牛出有穴
		147	---- 城乃--	147	---- 城乃--	146	---- 城乃--	140	一夜之宿 長城或築
95	-----	148	-----	148	-----	147	-----		

96	-----	149	-----	149	-----	148	-----	141	絲棼或解 繩亂弗解
		150	-----	150	-----	149	-----	142	不知何雲 終雨其云
97	-----			151	-----	150	-----	143	貢以串輸 賂用馱驅
98	-----			152	-----	151	-----	144	餽餽之餌 安有表裏
99	-----			153	-----	152	-----	145	豈與狗爭 而往瀾園
				154	-----	153	-----	146	十人之守 難敵一寇
				155	----用--	154	----用--	147	本不結交 安有絕交
				156	-----	155	-----	148	昔以甘茹 今乃苦吐
								213	雖小唯椒

[표 2] 「백언시」 4종과 『이담속찬』(조선속담)('손암소집' 제외)에서의 속담

이상에서 확인되는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는 속담의 순서이다. 『이담속찬』[조선속담]의 속담 순서는 「백언시」 계열과 매우 상이하다. 다산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해오던 속담을 한데 묶으면서, 그 순서에도 큰 변화를 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백언시A를 제외한 백언시 계열 3종의 경우, 지엽적인 착간을 제외하고는¹⁴⁾속담 순서가 거의 동일하다. 또한 백언시A의 경우에도, 초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속담 순서가 백언시 계열과 일치한다.

이는 백언시A에서 잘려나간 분량이 2행이라는 근거도 된다. 일례로

14) 백언시B의 73번과 74번 순서가 여타의 판본에서는 74번과 73번 순으로 바뀌어 있다. 유독 백언시B에서만 나타나므로, 백언시B 필사 당시의 착간으로 판단된다.

백언시A의 19번[歌曲雖豔 恒聽斯厭]은 3면의 마지막 속담이고, 20번[始用 升授 酒以斗受]은 4면의 첫 속담이다. 3면과 4면은 앞뒷면이므로 잘려나간 분량이 서로 같으며, 따라서 19번과 20번 속담 사이의 잘려나간 속담은 여하간의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타 백언시 계열의 속담 순서를 보면 19번과 20번 사이에 5개의 속담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백언시A는 이들과 속담 순서 및 형태가 같기도 하다. 이로써 본다면 19번과 20번 사이에 잘려나간 속담의 숫자는 4개가 유력하며, 이로써 한 면당 잘린 분량도 2행이 된다.

한편 백언시A의 속담 개수가 나머지 백언시 계열보다 적은 것이 혹시 낙장 때문은 아닐까 의심해볼 수 있다. 실제로 백언시A의 사이사이에 는 백언시 계열에는 실린 속담이 다수 빠져있기도 하다. 그런데 연속되어 빠진 경우 그 개수가 많아야 6개에 그치며[83번과 84번 사이], 더욱이 백언시A의 마지막 속담은 백언시 계열에서도 끝부분에 해당한다. 바로 백언시A에 낙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인 것이다. 이상의 정보를 통해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백언시A가 백언시 계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생성된 판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산이 이후에 추가된 속담을 기왕의 속담 순서를 대체로 유지한 채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백언시B를 보면, 속담 개수가 150개로서 백언시A보다 20여 수 이상이 많다. 또한 백언시A에 실린 속담 대부분은 백언시B에도 실려 있다. 그런데 유달리 백언시A의 97~99번에 해당하는 속담만은 백언시B에 실려 있지 않다. 더구나 백언시B는 제자 이강희가 스승의 저작을 필사한 것이므로, 임의의 누락이나 수정이 없는 전사본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정황은 백언시B 저본의 상태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백언시A의 97~99번에 해당하는 속담은 백언시B의 순서대로라면 151번

이하에 해당하므로, 백언시 계열의 최대 속담수를 고려하면 마지막 면에 해당한다. 이강희가 필사할 당시 저본의 마지막 면이 낙장된 상태였음을 추정케 하는 것이다.

둘째는 속담의 자구이다. 판본별로 『이담속찬』[조선속담]의 자구와 차이나는 사례는, 백언시A는 99개 중 26건, 백언시B는 150개 중 62건, 백언시C는 156수 중에서 55건, 백언시D는 155수 중에서 57건이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표 3]은 백언시 4종 중에서 어느 1종만이 『이담속찬』[조선속담]의 자구와 차이나는 사례로, 모두 14건이다. 1글자의 차이가 대부분이며, 이형자[이체자], 유의어, 순서의 착간, 글자의 누락 등이 그 이유이다. 빈번한 순서로 보면 백언시B는 8건, 백언시D는 3건, 백언시C는 2건, 백언시A는 1건이다.

- ※ 백언시C의 속담 배열을 ‘기준순서’로 했으며, 나머지 저작의 속담 배열은 ‘본래순서’에 표기함.
 ※ 『이담속찬』[조선속담]과 비교해 상이한 자구를 드러냈고, 같은 자구는 ‘-’로, 생략된 자구는 ‘()’로 표기함.

백언시A (『장서각본 『여유당집』)		백언시B (『운곡잡저』)		백언시C (『고금비언』)		백언시D (『청관총서』)		『이담속찬』 (『조선속담』 (장서각본))	
본래 순서	속담	본래 순서	속담	기준 순서	속담	본래 순서	속담	본래 순서	속담
17	-----	23	-----	23	-----	23	尾狗-----	4	狗尾三基 不成貂皮
24	-----	37	-----	37	----欲--	37	-----	51	索絢爲罟 尙或捕虎
25	-----	38	----咬--	38	-----	38	-----	52	予所畜犬 迺噬我膂
28	-針-----	42	-----	42	-----	42	-----	56	竊鍼不休 終必竊牛
29	-----	43	言甘-----	43	-----	43	-----	57	甘言之家 豉味不嘉

		56	-----	56	-----	56	---委 委羽	69	鳥之所止 有羽其委
46	-----	67	----何	67	-----	67	-----	76	雖臥馬糞 此生可願
		76	-----	76	-----	76	---絲---	84	雖有忙心 線不繫鍼
52	-----	79	--谷上---	79	-----	79	-----	87	留子之谷 虎亦顧復
55	-----	84	----酬	84	-----	84	-----	90	狗貸虎狼 豈望報償
67	-----	99	----亦	99	-----	99	-----	100	難升之木 無然仰矚
		100	躍-----	100	-----	100	-----	101	經夜無怨 歷日無恩
		101	----- -----	101	----(深) -----	101	----- -----	214	寧測十丈 水深 難測一丈 人心
		109	----權	109	-----	109	-----	15	由惜一瓦 櫟摧大厦

[표 3] 「백언시」 4종 중에서 1종의 자구가
『이담속찬』[조선속담]('순암소집' 제외)의 자구와 다른 속담

다음으로 백언시 4종 중에서 2종 이상이 『이담속찬』[조선속담]의 자구와 차이나는 사례[이하 A]이다. [표 4]에서와 같이 모두 55건인데, 그중에서 4종에 모두 실린 속담은 29건이고[이하 A-①], 백언시A에는 빠진 속담은 26종[이하 A-②]이다.

※ 백언시C의 속담 배열을 '기준순서'로 했으며, 나머지 저작의 속담 배열은 '본래순서'에 표기함.

※ 『이담속찬』[조선속담]과 비교해 상이한 자구를 드러냈고, 같은 자구는 ' - '로, 생략된 자구는 ' () '로 표기함.

백언시A (장서각본 『여유당집』)		백언시B (『운곡잡저』)		백언시C (『고금비언』)		백언시D (『청관총서』)		『이담속찬』 (조선속담) (장서각본)	
본래 순서	속담	본래 순서	속담	기준 순서	속담	본래 순서	속담	본래 순서	속담
2	----不汝	1	----不汝	1	----不汝	1	----不汝	30	咎在我瞽 溝汝何怒
3	----覆	2	----覆	2	----覆	2	----覆	31	匪爾牛角 我牆何崩
		7	水灌厥鬲 --注 足	7	水灌厥鬲 --注 足	7	水灌厥鬲 --注 足	20	灌頂之水 必流于趾
4	---告---	8	---告---	8	---告---	8	---告---	21	語牛則滅 語妻則洩
13	---- ----	10	蒿畦一醜 ----	10	蒿畦一醜 ----	10	蒿畦一醜 ----	23	一汚菑圃 終疑此狗
10	---- --畏虎口	16	---- --畏虎口	16	---- --畏虎口	16	---- --畏虎口	3	一日之狗 不知畏虎
11	---踰 門	17	---踰 門	17	---踰 門	17	---踰 蚤	27	孩兒之言 宜納耳門
12	-----	18	--畏----	18	-----	18	--○----	28	爪芒思擢 心蛆罔覺
14	--殘----	19	--殘----	19	--殘----	19	--殘----	29	由酒一盞 或淚厥眼
15	弟求莫應 盜 有剩	20	弟求莫應 盜 有剩	20	弟求莫應 盜 有剩	20	弟求莫應 盜 有剩	35	無贈弟物 有贈盜物
		21	--手其闊 春湧其滑	21	--手其闊 春湧其滑	21	--手其闊 春湧其滑	36	婦子手闊 譬彼春湧
		28	---滋----	28	---滋----	28	---滋----	42	我腹既飽 不察奴飢
		29	-----戚	29	-----戚	29	-----戚	43	十指徧齧 疇不予感
		32	淒彼稭屨 皖此--	32	淒彼稭 皖此--	32	淒彼稭 皖此--	46	眡此藁屨 安有菊紉
21	母曰--	33	母曰--	33	母曰--	33	母曰--	47	緩驅緩驅 牡牛之步
		35	---- 會不反隅	35	---- 會不反隅	35	---- 會不反隅	49	婦老爲姑 靡不效尤
		52	--之戰 --在前	52	--之戰 --在前	52	--之戰 --在前	212	鯨鬪鯢死

		53	----班猫--	53	----班猫--	53	----班猫--	66	靈龜之脊 草蜥載螯
		54	--在- ----	54	--在- ----	54	--在- ----	67	諸狗趁後 必顧瘋狗
38	匪拌不- ----	58	匪拌不- ----	58	匪拌不- ----	58	匪拌不- ----	17	在灶之鹽 搗之乃鹹
40	疾噉求缺 ----	61	疾噉求缺 ----	61	疾噉求缺 ----	61	疾噉求缺 ----	71	饕饕之食 必咽其嚙
41	--進餌 以--	62	--進餌 以--	62	--進餌 以--	62	--進餌 以--	72	些些之食 可放纖矢
43	--體製 --貌制	64	--體製 --貌揭	64	--體製 --貌揭	64	--體製 --貌揭	73	衣視其體 名視其貌
45	--瘼 ----	66	--瘼 ----	66	--瘼 ----	66	蚤-瘼 -蚤--	75	聞則是病 不聞是藥
49	----孰--	70	----孰--	70	----孰--	70	----孰--	78	諱伴出根 不算其糧
		71	----孰--	71	----孰--	71	----孰--	79	暗中胸目 誰應約束
		77	--匆匆 --春	77	--匆匆 --春	77	--匆匆 --春	85	緣我事急 野確先躡
		80	執琰之臂 終向內施	80	執琰之臂 終向內施	80	執琰之臂 終向內施		
		82	囹圄吞椒 其辣不昭	82	囹圄吞椒 其辣不昭	82	囹圄吞椒 其辣不昭	149	全椒不末 吞不知辣
		85	獨監歧麴 難節嗜慾	85	獨監歧麴 難節嗜慾	85	獨監歧麴 難節嗜慾	150	莫以狗子 監此麴歧
		91	-黨胥詬 ----	91	-黨胥詬 ----	91	-黨胥詬 ----	93	宗族之鬪 不異狗鬪
62	-之將躍 亦 縮厥脚	93	蠹之將躍 亦縮厥脚	93	蠹之將躍 亦縮厥脚	93	蠹之將躍 亦縮厥脚	95	蛙惟踴矣 乃能躍矣
		94	犛狗沐浴 終岡刮目	94	犛狗沐浴 終岡刮目	94	犛狗沐浴 終岡刮目	96	烏狗之浴 不變其黑
64	----嫵	96	----嫵	96	----嫵	96	----嫵	5	烏聲十二 無一媚媚
65	-無妬- ----	97	-無妬- ----	97	-無妬- ----	97	-無妬- ----	98	雖曰無猜 喜觀鄰災
69	----度--	106	----度-季	106	----度--	106	----度--	13	竿頭苟延 或至三年
72	-----	110	-----先	110	-----先	110	-----先	105	盜之就孥 厥足自麻

73	---- 弗--	111	---- 弗-握	111	---- 弗-握	111	-前- 勿-後握	106	盜以後捉 不以前捉
75	---- 繡鞞何須	113	---- 繡鞞奚須	113	---- 繡鞞奚須	113	---- 繡鞞奚須	108	赤保之軀 難佩繡鞞
76	-----	114	----必--	114	----必--	114	----必--	109	善往之願 反受雷震
77	-----易素	115	----易素	115	----易素	115	----易素	110	宰牛無臠 剝栗難藏
81	喪馬葇廐 既往何救	119	喪馬葇廐 既往何救	119	喪馬葇廐 既往何救	119	喪馬葇廐 既往何救	117	既喪其馬 乃葇廐廐
82	----奇-	120	----奇-	120	-----	120	-----	114	視彼徒者 見我騎馬
		121	---- 梨柿何擅	121	---- 梨柿何擅	121	---- 梨柿何擅	118	他人之宴 曰梨曰柿
		123	--致虎 --致怒	123	--致虎 --致怒	123	--致虎 --致怒	116	談虎虎至 談人人至
		126	桁楊所莅 遂無將師	126	桁楊所莅 遂無將師	126	桁楊所莅 遂無將師	211	惟杖無將
85	-兒雖蒙 所愛惟從	130	-兒雖蒙 所愛惟從	130	-兒雖蒙 所愛惟從	130	-兒雖蒙 所愛惟從	124	孩誰向背 趨其所愛
		131	-攘厥雞 心目俱迷	131	-攘厥雞 心目俱迷	131	-攘厥雞 心目俱迷	123	替者嗜嚙 自攘厥雞
		133	駒鬣之垂 --知	133	駒鬣之垂 --知	133	駒鬣之垂 -左-知	126	駒之方鬣 左右難占
		134	--官 悄怳不安	134	--官 悄怳不安	134	--官 悄怳不安	127	村雞入縣 厥目先眩
		136	-置-- ----	136	-置-- ----	136	-置-- ----	129	貧家之調 天子其憂
		143	---- 乃能孝矣	143	---- 乃能孝矣	142	-渺-- -能孝矣	136	彼吵者子 乃孝厥妣
93	黝-----	145	黝-----	145	黝-----	144	黝-----	138	洌彼陰岡 尙或回陽
		147	----城乃--	147	----城乃--	146	----城乃--	140	一夜之宿 長城或築
				155	----用--	154	----用--	147	本不結交 安有絕交

〔표 4〕 「백언서」 4종 중에서 2종 이상의 자구가
『이담속찬』(조선속담)('손암소집' 제외)의 자구와 다른 속담

A-①의 29건 중에서 4종의 자구가 『이담속찬』[조선속담]의 자구와 동일하게 다른 사례는 18건이다.¹⁵⁾ 또한 마찬가지로 A-②의 26건 중에서 3종의 자구가 『이담속찬』[조선속담]의 자구와 동일하게 다른 사례는 24건이다.¹⁶⁾ 이는 속담의 자구가 백언시 계열 내에서는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전승되었다는 것과, 그중 일부 속담의 자구가 『이담속찬』[조선속담]의 단계에 이르러 변경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근거로 5종의 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백언시 계열과 『이담속찬』[조선속담]의 선후관계이다. 백언시 계열 4종은 (a)‘손암소집’이 실리지 않았다는 점, (b)150수의 속담을 공유한다는 점, (c)그 순서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같은 계열의 판본으로 묶일 수 있다. 한편 『이담속찬』[조선속담]은 (a)‘손암소집’ 60수가 포함된 점, (b)속담 순서가 여타의 이본들과 상이한 점, (c)「백언시」 계열에서 지속되어오던 속담 자구에 대해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이로써 보건대 백언시 계열은 ‘손암수집’ 이전까지 수집된 ‘조선속담’을 대상으로 생산되었고, 『이담속찬』[조선속담]은 기왕의 「백언시」가 수정되고 ‘손암소집’이 더해져서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백언시 계열 4종의 관계인데, 판본간 자구의 차이를 통해서는 이를 예단하기 어렵다. 필사 당시의 실수가 다수 보이며, 이로 인해 판본 간 변화의 뚜렷한 계열성이나 규칙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중에서 백언시A는 가장 이른 시기에 생산되었거나 혹은 이를 저본으로 한 필사본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는 (a)순서나 구성으로 볼

15) 백언시C를 기준으로 1번, 2번, 8번, 16번, 19번, 20번, 33번, 58번, 61번, 62번, 66번(고어체), 70번, 96번, 97번, 113번, 119번, 130번, 145번이다.

16) 백언시C를 기준으로 7번, 21번, 28번, 29번, 32번, 35번, 52번, 53번, 54번, 71번, 77번, 80번, 82번, 85번, 91번, 94번, 121번, 123번, 126번, 131번, 133번, 134번, 136번, 147번이다.

때 낙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 (b)이로써 추산되는 속담수가 124~127수로 나머지 백언시 계열보다 적다는 점, (c)장기에서 저술된 정황이 서문에 쓰여 있다는 점, (d)백언시A로부터 시작되는 자구의 계기적 변화 사례가¹⁷⁾ 확인된다는 점 등이다.

나머지 3종의 경우에도 ‘손암소집’이 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손암이 죽기 이전에 생산되었거나, 이를 저본으로 이후 필사되었을 것이다. 백언시B는 이강회가 1818년에 흑산도로 입도한 이후 다산의 저작을 필사했으므로, 그 저본은 강진 유배기에 만들어진 것이 된다. 백언시C는 저자가 ‘籀翁’으로 되어있고, 다산 수고본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따라서 다산이 초당으로 이거하기 전에 생산되었거나, 혹은 그러한 저본을 이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백언시D의 경우에도 저본 및 필사본의 생산 시점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손암소집’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3. 「아언지하雅言指瑕」 이본들 및 『아언각비雅言覺非』의 비교

1) 「아언지하」 장서각본, 규장각본, 보유본의 관계

17) 백언시A기준 43번과 82번 속담이 그 사례이다. 43번 속담의 경우 ‘衣視體製 名視貌制[백언시A] → ‘衣視體製 名視貌揭[백언시B] → ‘衣視體製 名視貌揭[백언시C] → ‘衣視體製 名視貌揭[백언시D] → ‘衣視其體 名視其貌[『이담속찬』]의 순서로 자구가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82번 속담에서도 자구가 ‘視彼徒者 見我奇馬[백언시A] → ‘視彼徒者 見我奇馬[백언시B] → ‘視彼徒者 見我騎馬[백언시C] → ‘視彼徒者 見我騎馬[백언시D] → ‘視彼徒者 見我騎馬[『이담속찬』]의 순으로 변화한 경향성이 확인된다.

「아언지하雅言指瑕」는 표제의 뜻 그대로 ‘세간에서 잘못 쓰이는 자의 字意나 성어成語를 고증하고 바로잡은 저술이다. 「혼돈록餽飧錄」과 함께 『아언각비』가 완성되기 전의 초기 저작으로 평가된다.¹⁸⁾

『고금비언』이 발굴됨으로써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아언지하」의 이본은 총 4종이 되었는데, ①『고금비언』에 속한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A), ②장서각 소장 『여유당집』의 잡문雜文 11책에 속한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B), ③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여유당집』(규11894)의 18책에 속한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C), ④1969년에 초판된 『여유당전서보유』(경인문화사)의 2권에 속한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D)이다.¹⁹⁾

4종에는 모두 서문이 없고, 22면에 걸쳐 총 47조목이 실려 있다. 조목마다 별도의 항목을 두지는 않았으며, 해당 조목의 첫 행만을 내어 쓰는 방식도 동일하다. 한편 저자의 경우 아언지하A와 B에서는 ‘籀翁’으로, C와 D에서는 ‘冽水’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4종 사이에는 어떤 차이와 관계가 있을까? 먼저 아언지하C와 아언지하D(그림 5)를 통해 비교해보자.

한눈에 확인되듯 두 이미지의 대상은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언지하C의 우상단에 있는 낙관을 영인할 때 기술적으로 지워낸 것뿐이다. 이로써 아언지하C와 아언지하D의 관계가 분명해졌다. 아언지하D가 아언지하C의 영인본인 것이다.

18) 김인중, 「『여유당전서보유』의 저작별 진위문제에 대해여(상)」, 『다산학』 9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6; 노경희, 「『雅言覺非』의 이본과 유전」, 『다산학』 23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19) 그간의 연구에서는 아언지하B가 다산 가장본이며, 아언지하C는 일제 참사관분실에서 1915~16년 사이에 필사한 것이고, 아언지하D는 아언지하C를 저본으로 영인한 것이 밝혀졌다.(노경희, 「1910년대 조선총독부 參事官室의 謄寫本 제작과 전승」, 『대동한문학』 55집, 대동한문학회, 2018) 또한 아언지하C의 저본이 아언지하B라는 추정도 제기되었다.(노경희, 앞의 글, 2013)



(그림 5) 아언지하C와 아언지하D의 본문 첫 면

그렇다면 아언지하C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생산되었을까? 선행의 연구에서는 아언지하C가 아언지하B를 저본으로 하여 등사되었음을 추정 한 바 있다.²⁰⁾ 필자는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는데, 그 근거는 아언지하B의 수정이 아언지하C에 수용된 양상이다. 이를 아언지하B에서의 5가지의 수정 방식을 통해 확인해보자.

첫째는 필사 시 누락된 글자를 작게 써넣는 방식이다.²¹⁾ 2개의 사례가 있는데, 먼저 18면 첫째 행의 ‘杏’자와 ‘乃’자 사이에는 부호[。]와 함께 그 옆에 ‘壇’자가 쓰여 있다(그림 6). 또한 19면 여섯 번째 행에서는 ‘大’자와 ‘如’자 사이에 ‘有’자가 작게 쓰여 있다(그림 7).

20) 노경희, 앞의 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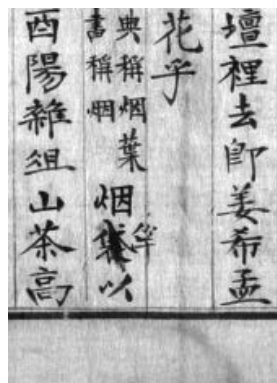
21) 모두 2개의 사례가 확인되는데, 18면 1행에서의 ‘壇’字, 19면 6행에서의 ‘有’字이다.



(그림 6)
아언지하B의 수정유형1-①



(그림 7)
아언지하B의 수정유형1-②



(그림 8)
아언지하B의 수정유형2

둘째는 글자의 수정으로, 1건이 확인된다. [그림 8]을 보면 애초에 쓰인 ‘蓑’자를 검게 지우고, 그 옆에 ‘竿’자를 써놓았다.

셋째는 두주로, 1건이 확인된다. [그림 9]를 보면, 둘째 줄 위쪽에 “菜”자는 아마도 ‘萊’자를 잘못 쓴 것이다.[菜恐萊誤]”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같은 줄에 있는 2개의 ‘菜’자 오른쪽에 부호[·]를 표시해 놓았다.

넷째는 본문의 본 글자 옆에다 작게 글자를 써놓은 것이다.(이하의 사진에서 ○로 표시) 이들은 다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광별레가 종이를 갈아먹어 분별이 어려운 글자에 대해 그 옆에 붉은색으로 원래의 글자를 써놓은 것인데,²²⁾ [그림 10]에서의 ‘呼以’와 [그림 11]에서의 ‘是豈’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잘못 쓰였다고 판단되는 원문의 글자 옆에다가 옳다고 여겨지는 글자를 써놓은 것으로, [그림 12]에서 ‘指’자 옆에 쓰인 ‘趾’자나, [그림 13]에서 ‘菜’자 옆에 쓰인 ‘萊’자가 그러하다.

22) 모두 13개의 사례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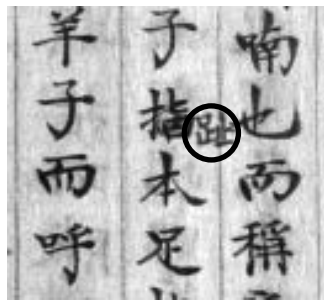
[그림 9]
아언지하B의
수정유형3



[그림 10]
아언지하B의 수정유형4-①



[그림 11]
아언지하B의 수정유형4-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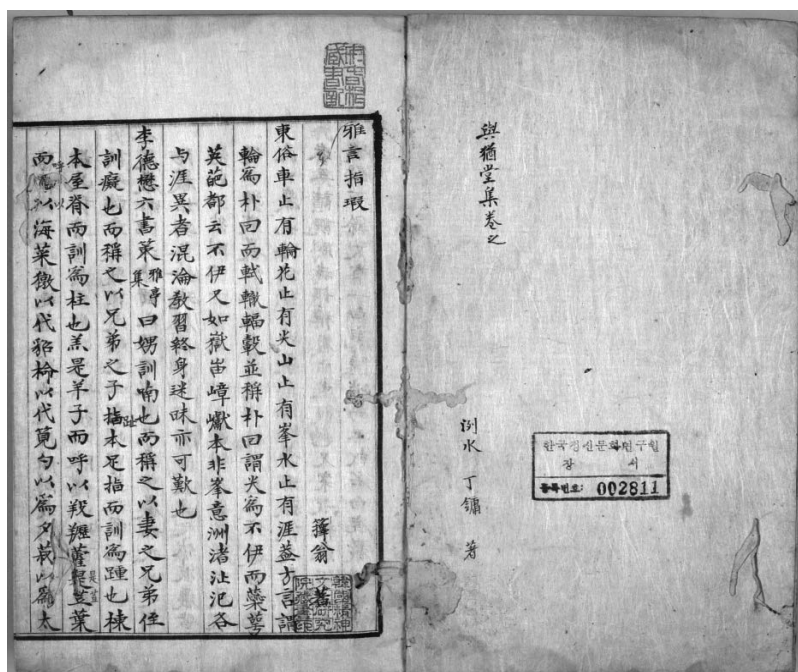


[그림 12]
아언지하B의 수정유형4-③



[그림 13]
아언지하B의 수정유형4-④

다섯째로는 권수제와 저자의 수정이다. [그림 14]는 내지 첫째 면[그림의 왼쪽]과 표지 안쪽면[그림의 오른쪽]이다. 그런데 내지 첫째 면을 보면, 권수제인 '雅言指瑕'의 왼쪽과 저자인 '籀翁 著'의 오른쪽에 붉은색의 수정부호가 있다. 그리고 표지 안쪽면의 왼편에는 위로부터 '與猶堂集卷之'와 '洌水 丁鏞 著'가 적혀 있다. 애초에 기입했던 권수제와 저자를



(그림 14) 아언지하B의 수정유형5

이와 같이 수정하겠다고 표시해놓은 것이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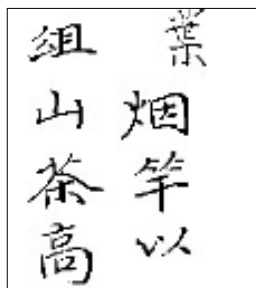
그렇다면 상술한 아언지하B에서의 수정은 아언지하C에 반영되었을까? 이는 양자의 선후 및 연관 관계를 논증할 주요한 근거가 된다. 대표적인 몇 가지의 사례를 확인해보자. 먼저 [그림 5]의 왼쪽 면과 [그림 14]의 왼쪽 면을 비교해보면, 아언지하B의 내지 첫 장에 표기된 여러 수정사항들이 아언지하C에 모두 반영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글자 수정의 사례를 보자. 아래의 그림들은 아언지하B에서의 글자수정이 아언지하C의 본문에 반영된 사례들인데, 각각 ‘壇’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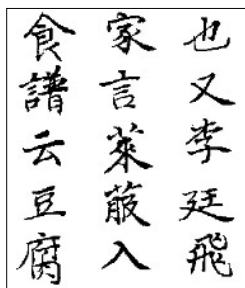
23) 이상의 다섯 유형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산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머지는 언제, 또 누가 했는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림 15)
아언지하C에서의
수정반영사례-1



(그림 16)
아언지하C에서의
수정반영사례-2



(그림 17)
아언지하C에서의
수정반영사례-3

‘竿’자, ‘萊’자가 제 자리에 쓰여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의 사례들을 포함한 아언지하B에서의 모든 수정이 아언지하C에 반영되어 있었다. 이는 양자의 관계에 있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아언지하C의 필사 시점이 아언지하B에서의 수정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였다는 것이다.²⁴⁾ 다른 하나는 아언지하C의 저본이, 이상의 수정이 완료된 아언지하B 또는 이를 등사한 어떤 필사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상을 근거로 아언지하B·C·D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언지하B는 3종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다산 가장본의 형태나 다산 수고본에서의 수정 양식이 확인되므로, 생산 시점이 다산이 살아있을 때였을 것이 유력하다. 한편 아언지하B는 이후로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쳤는데, 1910년대 참서관실에서 생산한 아언지하C에는 아언지하B에서의 모든 수정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아언지하B의 마지막 수정은 늦어도 1910년 이전에 완료되었으며, 또한 아언지하C의 저

24) 아언지하C가 1910년대 일제의 참서관실에서 등사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으므로(노경희, 앞의 글, 2018), 아언지하B에서의 모든 수정이 1910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

본은 수정이 완료된 아언지하B, 혹은 이를 저본으로 생산된 또 다른 등 사본이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아언지하D는 아언지하C를 영인하여 1969년에 출간된 것이다.

2) 『고금비언』 「아언지하」, 「아언지하」(장서각본), 『아언각비』(정본)의 비교

『고금비언』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A)는 아언지하B와 서지적 공통점이 많다. 우선 가장본의 형태를 띠며, 다산 수고본에서의 수정 양상이 나타나고, 저자가 ‘籀翁’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는[혹은 그 저본] 아언지하C·D보다 먼저 생산되었음이 확실하며, 그 시점은 1808년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생산되었느냐이다. 양자는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대단히 유사하며, 또한 책제 및 저자 표기, 전체 분량, 조목의 수와 순서 등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자의 본문을 축자로 대조해본 결과, 모두 26종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①자구는 서로 같으나 어느 한쪽이 수정[첨입]된 경우, ②자구가 상이한 경우로 구분해서 분석해보았다.

먼저 ①의 사례를 보자. 모두 7건인데, 아언지하A의 사례[5건]²⁵⁾ 아언지하B의 사례[2건]²⁶⁾보다 많다. 먼저 아언지하B의 두 사례를 보면 모두 한 글자만이 첨입되었다. 38번 조목에서 ‘畚’자와 ‘乃’자 사이의 ‘壇’이, 40번 조목에서 ‘大’와 ‘如’ 사이의 ‘有’가 그것으로, 애초의 필사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글자를 차후에 삽입한 것이다.

25) [표 5]의 3번, 9번, 15번, 25번, 45번 조목이다.

26) [표 5]의 38번, 40번 조목이다.

※ 부호는 필자가 부여한 것임.
 ※ ‘()’는 본문에 누락된 자구임.

조목 순서	조목 첫구	아언지하A (『고금비언』)		아언지하B (장서각 소장 『여유당집』)	
		내용	비고	내용	비고
3	金農巖	〔頭註〕之玲瓏巖 永福之方廣巖 桂林之伏波巖	始興과皆是 사이에 삽입할 문구를 두주에 표기	之玲瓏巖 永福 之方廣巖 桂林 之伏波巖	해당 문구가 본문에 쓰임
9	公然者	杜詩公(然)抱茅入竹 去 亦此意	‘然’을 추후 삽입	杜詩公然抱茅 入竹去 亦此意	‘然’이 본문에 쓰임
15	黃病之疸	今黃病之(疸) 皆以入 聲讀	‘疸’을 추후 삽입	今黃病之疸 皆 以入聲讀	‘疸’이 본문에 쓰임
25	俗稱海松 子爲柏子	鵲巢而鳩居矣 (兒)生 何以能文	‘兒’를 추후 삽입	鵲巢而鳩居矣 兒生何以能文	‘兒’가 본문에 쓰임
38	杏壇之說	今之杏壇 乃宋乾興間孔道輔增 修祖廟	‘壇’이 본문에 쓰임	今之杏(壇) 乃 宋乾興間孔道 輔增修祖廟	‘壇’을 추후 삽입
40	唐船破於 洋中	余見白雲洞李氏竹園 其大有如此者	‘有’가 본문에 쓰임	余見白雲洞李 氏竹園 其大 (有)如此者	‘有’를 추후 삽입
45	進船之具	謂之篙者(是)也 今俗 以棹	‘是’를 추후 삽입	謂之篙者是也 今俗以棹	‘是’가 본문에 쓰임

〔표 5〕 아언지하A와 B의 자구 비교: 유형 ①

한편 아언지하A의 다섯 사례 중 4건에서도 한 글자만이 첨입되었다. 그런데 3번 조목에는 예외적으로 긴 문장이 두주로 삽입되어 있다. 해당 문장 전체를 소개하면 “김농암【김공 창협이다.】이 말하기를, ‘중국인은 돌에 구멍이 있는 것을 巖이라고 했는데, 영주의 조양암, 시흥의 영릉암, 영복의 방광암, 계림의 복파암이 다 이것이다.〔金農巖云【金公昌協中國人稱石之有穴者曰巖, 如永州之朝陽巖, 始興之玲瓏巖, 永福之方廣巖, 桂林之伏波巖, 皆是也.〕’이다. 이 중에서 밑줄 친 16자가 두주에 적혀 있는데, 본문 작성 당시에 누락되었던 것을 이후에 써넣은 것이다.

다음으로 ②를 보자. 두 필사본 사이에는 자구가 상이한 사례가 17건이 있는데, 이는 다시 (a)자구의 순서가 상이한 것과[2건], (b)문자가 상이한 것[15건]으로 구분된다.

먼저 ②-(a)의 사례를 보자.

- ※ 부호는 필자가 부여한 것임.
- ※ ‘()’는 본문에 누락된 자구임.

		아연지하A (『고금비언』)		아연지하B (장서각 소장 『여유당집』)	
조목 순서	조목 첫구	내용	비고	내용	비고
46	蜀黍 謂之 垂穗	㉠頭盔謂之鬬具【華音云투귀】 ㉡錢糧謂之賤量【華音云천량】 ㉢頭錢謂之投賤【華音云투전】 ㉣竿籬謂之釣來【華音云조래】	순서 : ㉠ - ㉡ - ㉢ - ㉣	㉢頭錢謂之投賤【華音云투전】 ㉠頭盔謂之鬬具【華音云투귀】 ㉡錢糧謂之賤量【華音云천량】 ㉣竿籬謂之釣來【華音云조래】	순서 : ㉢ - ㉠ - ㉡ - ㉣
47	方言 佛曰	在苻堅之 則時宜無自古流來之方言	‘則是’ 옆에 글 자 순서 를 수정 해야 함 을 표기	在苻堅之時 則宜無自古流來之方言	‘時則’으 로 쓰임

[표 6] 아연지하A와 B의 비교: 유형 ②-(a)

46번 조목의 경우, 아연지하A에서는 자구의 순서가 ‘㉠-㉡-㉢-㉣’인데 아연지하B에서는 ‘㉢-㉠-㉡-㉣’로 되어 있다. 또한 47번 조목의 경우, 아연지하A에는 ‘則時’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 순서를 바꾸라는 뜻의 수정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아연지하B에서는 두 글자의 순서가 바뀐 ‘時則’로 쓰여 있다.

다음으로 ②-(b)의 사례를 보자. 이는 다시 ㉠아연지하A에만 있는 자

구[2건], ㉞아언지하B에만 있는 자구[11건], ㉟양자에서 달리 쓰인 자구
[4건]로 구분된다.[표 11]

※ ‘()’는 본문에 누락된 자구임.

				아언지하A (『고금비언』)		아언지하B (장서각 소장 『여유당집』)	
유형		조목 순서	조목 첫구	내용	비고	내용	비고
②- (b)	㉠	19	蜀黍之謂 唐謂糖	蜀黍 蓋本遼瀋所上 之穀	‘本’이 본 문에 쓰임	蜀黍 蓋(本)遼瀋所上 之穀	‘本’의 누락
	㉡	38	杏壇之說	然且種杏矣 非種銀 杏	‘矣’가 본 문에 쓰임	然且種杏(矣) 非種銀 杏	‘矣’의 누락
	㉢	13	漢清文鑒	漢清(文)鑒 清語 二十八宿 皆有方言	‘文’의 누 락	漢清文鑒 清語二十八 宿 皆有方言	‘文’이 본 문에 쓰임
	㉣	19	蜀黍之謂 唐謂糖	爾雅稱唐蒙女蘿 (女 蘿)免絲者是也	‘女蘿’의 누락	爾雅稱唐蒙女蘿 女蘿 免絲者是也	‘女蘿’가 본문에 쓰임
	㉤	24	俗稱松脂 爲松津	其(云)杏松津柏松津	‘云’의 누락	其云杏松津柏松津	‘云’이 본 문에 쓰임
	㉥	26	斤所作罽	唐書百官志 有筆匠 酒匠(醬匠)裝潢匠	‘醬匠’의 누락	唐書百官志 有筆匠酒 匠醬匠裝潢匠	‘醬匠’이 본문에 쓰임
	㉦	30	王衍口不 言錢	見錢在牀前 (曰)阿堵 後人遂謂錢爲阿堵	‘曰’의 누락	見錢在牀前 曰阿堵 後人遂謂錢爲阿堵	‘曰’이 본 문에 쓰임
	㉧	30	王衍口不 言錢	(昔)顧長康傳神曰 精 神妙處 正在阿堵中	‘昔’의 누락	昔顧長康傳神曰 精神 妙處 正在阿堵中	‘昔’가 본 문에 쓰임
	㉨	37	芝峯類說 曰	禹貢(注 楮中矢 榦 魯 語 肅慎氏貢)楮矢	‘注 楮中矢 榦 魯語 肅 慎氏貢’의 누락	禹貢注 楮中矢 榦 魯 語 肅慎氏貢楮矢	‘注 楮中矢 榦 魯語 肅 慎氏貢’가 본문에 쓰임
	㉩	39	山茶以爲 冬柏	烟袋以爲烟竹 棉布 以爲白木 皆無所據	‘裳’자가 본문에 쓰임	烟竿以爲烟竹 棉布以 爲白木 皆無所據	‘裳’자를 검게 지우 고, 옆에 ‘竿’자를 씀

㉑	40	唐船破於洋中	則必有巨竹竿漂到我(岸) 其大數握	'岸'의 누락	則必有巨竹竿漂到我岸 其大數握	'岸'이 본문에 쓰임
㉑	45	進船之具	楊子方言(曰) 所以刺船	'曰'의 누락	楊子方言曰 所以刺船 謂之篙者	'曰'이 본문에 쓰임
㉑	46	蜀黍謂之垂穗	蜀黍謂(之)垂穗【華音云쑤슈】	'之'의 누락	蜀黍謂之垂穗【華音云쑤슈】	'之'가 본문에 쓰임
㉑	29	趺趺之劣者	蓋方言謂麥爲菩离而華音玻瓈亦近菩离	'不'로 쓰임	蓋方言謂麥爲菩离而華音玻瓈亦近菩离	'亦'으로 쓰임
㉑	46	蜀黍謂之垂穗	護項謂之揮項【華音云쑤향】	'쑤향'으로 쓰임	護項謂之揮項【華音云쑤향】	'쑤향'으로 쓰임
㉑	46	蜀黍謂之垂穗	套袖謂之吐手【華音云땀식】	'땀식'으로 쓰임	套袖謂之吐手【華音云땀쉬】	'땀쉬'으로 쓰임
㉑	46	蜀黍謂之垂穗	文人學士 莫之考察 遂皆誤矣	'矣'로 쓰임	文人學士 莫之考察 遂皆誤書	'害'로 쓰임

(표 7) 아언지하A와 B의 자구 비교: 유형 ㉑-(b)

위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네 가지이다.

첫째, ㉑는 아언지하B에 누락된 사례로서, 2건에 불과하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자구는 문장의 맥락이나 문법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둘째, ㉑는 아언지하A에 누락된 사례로서, 11건에 이른다. 또한 그중에는 문장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자구가 다수 있다. 예컨대 37번 조목에서의 '注 楷中矢榦 魯語 肅愼氏貢'는 필사 당시 해당 문장 앞부분의 '貢'자를 뒷부분의 '貢'자로 오인했던 까닭에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3번 조목에서 누락된 '文'은 『漢淸文鑒』이라는²⁷⁾ 서명의 한 글자이며, 19번 조목에서 누락된 '女蘿'는 뒤 구절의 주어이고, 40번 조목에서 누락된 '岸'도 내용상 필요한 글자이다. 모두 문장의 맥락이나 문맥상 반드시

27) 『漢淸文鑒』은 1779년(정조 3)경에 漢學檢察官인 李湛과 淸學檢察官인 金振夏 등이 펴낸 만주어 겸 漢語 사전이다.

시 필요한 구절임에도 필사 당시 누락되었으며, 이후 수정[첨입]되지도 못했다.²⁸⁾ 반면 아언지하B에서는 ⑥의 사례들에 해당하는 자구가 본문 내의 제 자리에 옳게 쓰여 있다.

셋째, ㉓는 아언지하A와 아언지하B의 자구가 상이한 사례로 4건이 있는데, 아언지하B의 자구가 아언지하A의 자구보다 문맥에 적합하다. 먼저 46번 조목을 보면, 아언지하A에서의 ‘矣’가 아언지하B에서는 ‘書’로 쓰였는데, 후자가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한다. 또한 아언지하A에서의 ‘탄식’은 아언지하B에서 ‘탄수’으로 쓰였는데, 곧 살펴보겠지만 후자가 중국 발음에 근접하다.

29번 조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다산은 안경을 지칭할 때 ‘麥鏡’이라고 쓰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말에서 ‘麥’을 ‘보리[菩离]’라고 부르는데, ‘玻璃[저자 주: 유리를 뜻함]’에 대한 중국어의 발음이 ‘보리[菩离]’와 비슷한 까닭에 안경을 ‘麥鏡’으로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산의 취지에서 본다면, 해당 구절은 아언지하A의 “중국의 음에서 ‘玻璃’가 ‘보리[菩离]’와 가깝지 않다[而華音玻璃不近菩离]”보다, 아언지하B의 “중국의 음에서 ‘玻璃’가 또한 ‘보리[菩离]’와 가깝다[而華音玻璃亦近菩离]”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아언각비』와의 비교이다. ㉔(b)의 17건 중에서 해당 자구가 『아언각비』에도 전승된 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이 7건이다.²⁹⁾

28) 나머지의 사례의 글자들도 문맥이나 문법상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문장을 매끄럽고 분명하게 한다.

29) 나머지 10건의 경우, 해당 자구가 『아언각비』에는 없거나 변형되어 비교가 불가능하다.

유형	조목 순서	조목 첫구	아언지하A (『고금비언』)		아언지하B (장서각 소장 『여유당집』)		아언각비 (정본 『여유당전서』)		
			내용	비고	내용	비고	권, 조목	비고	내용
㉠	19	萄黍之 謂唐謂 糖	萄黍 蓋本 遼藩所上 之穀	‘本’이 본문에 쓰임	萄黍 蓋 (本)遼藩所 上之穀	‘本’의 누락	2권, 萄黍	아언지 하A와 동일	萄黍 蓋本遼 藩間所上之 穀
㉢	30	王衍口 不言錢	見錢在牀 前(曰)阿 堵 後人遂 謂錢爲阿 堵	‘曰’의 누락	見錢在牀 前 曰阿堵 後人遂謂 錢爲阿堵	‘曰’이 본문에 쓰임	권3, 阿堵	아언지 하B와 동일	見錢在牀前 曰阿堵物
㉢	30	王衍口 不言錢	(昔)顧長康 傳 神曰精 神 妙處正 在阿堵中	‘昔’의 누락	昔顧長康 傳 神曰精 神 妙處正 在阿堵中	‘昔’이 본문에 쓰임	권3, 阿堵	아언지 하B와 유사	又顧長康傳 神曰精神 妙 處正在阿堵 中
㉢	37	芝峯類 說曰	禹貢(注 楮 中矢幹 魯 語 肅慎氏 貢)楮矢	‘注 楮中 矢幹 魯 語 肅慎氏 貢’의 누락	禹貢注 楮 中矢幹 魯 語 肅慎氏 貢楮矢	‘注 楮中 矢幹 魯 語 肅慎氏 貢’이 본문에 쓰임	권1, 柎荊	아언지 하B와 동일	禹貢注云 楮 中矢幹 魯語 肅慎氏貢楮 矢
㉢	40	唐船破 於洋中	則必有巨 竹竿漂到 我(岸) 其 大數握	‘岸’의 누락	則必有巨 竹竿漂到 我岸 其大 數握	‘岸’이 본문에 쓰임	권1, 蘆竹	아언지 하B와 동일	或有巨竹竿 漂到我岸 其 大數握
㉢	45	進船之 具	楊子方言 (曰) 所以 刺船 謂之 篙者	‘曰’의 누락	楊子方言 曰 所以刺 船 謂之篙 者	‘曰’이 본문에 쓰임	권2, 篙篙	아언지 하B와 유사	揚子方言云 所以刺船者 謂之篙
㉢	46	萄黍謂 之垂穗	套袖謂之 吐手【華音 云套식】	‘套식’ 으로 쓰 임	套袖謂之 吐手【華音 云套식】	‘套식’ 로 쓰임	권2, 套袖	아언지 하B와 동일	套袖謂之吐 手者 華音之 誤翻也【華 音套袖作套 식】

[표 8] 유형 ㉠-㉢ 중에서 『아언각비』에 전승된 사례

7건 중에서 『아언각비』의 자구가 아언지하B와 같은 것은 4건이나 되었고, 유사한 다른 글자로 교체된 사례도 2건이 있다.³⁰⁾ 특히 주목되는 것은 46번 조목에서의 ‘套袖’에 대한 한글 표기이다. ‘套袖’은 토시[吐手]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그 발음은 현대 중국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tàoxiù”인데, 이는 아언지하B와 아언각비에서 쓰인 ‘套수’와 발음이 거의 흡사하다. 그런데 아언지하A의 한글 표기를 보면 한자어 ‘袖’를 ‘식’으로, 즉 받침에 ‘ㄱ’이 있는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모음인 ‘ㅜ’를 자음인 ‘ㄱ’으로 오인하여 쓴 것이다.

이에 반해 『아언각비』의 자구가 아언지하A와 같은 것은 1건(19번 조목)에 불과하다. 또한 해당 글자인 ‘本’자는 문법 및 내용상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아언지하B 필사 당시의 실수에 의한 글자 누락에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언지하」와 『아언각비』의 관계이다. 선행의 연구에서는 「아언지하」가 『아언각비』의 초기 저작이며,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아언지하」의 47개 조목 중에서 39개가 『아언각비』에 수용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고도 이에 동의하는데, 다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간주했던 8개의 조목³¹⁾ 중에서 아래의 4개 조목에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30) 30번 조목에서의 ‘뽕’은 『아언각비』에서 ‘又’로, 45번 조목에서의 ‘ㄷ’은 『아언각비』에서 ‘云’으로 바뀌었다. 문맥을 고려해 유사한 의미의 다른 글자로 교체한 것이다.

31) 13조목, 14조목, 16조목, 17조목, 26조목, 29조목, 33조목, 43조목.

아언지하A (『고금비언』)		아언각비 (정본 『여유당전서』)	
조목 순서	본문	권, 조목	해당 본문
14조 목	酒器 祗有盞耳 凡梧槽彝勺 卮卮觴觥之類 並呼爲盞 教 兒如此 兒何能文	2권, 盞篙	東俗訓蒙 酒只有盞【與琖同】 船只有篙【方言 沙牙大】 何以文矣 周南卷耳疏云 一升曰爵 二升曰觚 三升曰卮 四升曰角 五升曰散 字 書云 一升曰杓 四升曰卮 七升曰觥 而杯與 觴 爲其總名 雖諸說不同 而其以大小異名則 審矣【今燕市賣酒 亦大小異器 以斤兩爲差】 又夏曰琖 殷曰罍 周曰爵【說文云】 則三代 各異名矣 又象雀之形謂之爵 六觚曰觥【梔 子亦六觚 卮所以名】 象獸之形謂之罍 罰酒 曰觥【震舍所用謂之觥 觥與觥通】 彝者 彝 尊也 鼎者 雷尊也 尊者 大器也 今竝訓之爲 盞 可乎
16조 목	藥草之酒炙蜜炙者 好稱酒 炙蜜炙 藥艸有丹田乎 有關 元乎 灸何穴哉	3권, 蜜炙	黃芪蜜炙鼈甲醋炙 炙者 燂也 東醫不厭 讀 炙爲灸 習以爲常 書炙作灸 不知藥物 本無 丹田 亦無三里 何以灸矣
29조 목	瓊瓊之劣者 俗稱麥鏡 蓋方 言謂麥爲苦离 而華音瓊瓊 亦近苦离 故因以譌傳也	2권, 檣頭 【縹紗等】	玻璃誤翻爲菩里【華音本보리 吾東麥曰菩里 故玻璃眼鏡 俗謂之麥鏡 其轉輒訛誤如此】
43조 목	頤音移 養也 頤也 音義與 頤同 東俗吏文 頤音脫 起 覺曰生頤 託故曰稱頤 免役 曰頤役 防粟曰頤稟	1권, 刷筩 【遍頤等】	頤本音頤 讀之如脫【起覺曰生頤 託故曰稱 頤】

〔표 9〕 『아언각비』로의 전승이 추가로 확인된 「아언지하」의 조목

〔표 9〕는 『아언각비』로의 전승이 추가로 확인된 「아언지하」의 4개 조목이다. 일례로 「아언지하」 14조목과 『아언각비』 ‘盞篙’조를 비교해 보자.

「아언지하」 14조목: 술그릇【酒器】에는 다만 ‘盞’밖에 없을 뿐인데,

무릇 梧·罍·彝·勺·卣·卣·觴·觥의 종류들이 모두 ‘蠡’이 되니, 아이들을 이와 같이 가르치면 아이들이 어찌 글자에 능할 수 있겠는가?

『아언각비』 ‘蠡篙’조: 우리나라 풍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술 [酒]에는 다만 술잔[蠡]이 있고,【‘蠡’은 ‘殘’과 같다.】 배[船]에는 다만 삿대[篙]가 있으니【방언으로는 ‘사아대(沙牙大)’이다.】 어떻게 글로 쓰겠는가? 『시경』 「周南」 ‘卷耳’의 疏에서 말하기를, “1升을 ‘爵’, 2升을 ‘觚’, 3升을 ‘卣’ 4升을 ‘角’, 5升을 ‘散’이라 한다.”고 했다. 『字書』에서 이르기로는, “1升을 ‘杓’, 4升을 ‘卣’, 7升을 ‘觥’이라 하며, ‘杯’와 ‘觴’은 그 아우르는 명칭이 된다.”고 했다. 비록 여러 말이 같지는 않으나, 그 크고 작음으로 해서 이름이 달랐음을 살필 수 있다.【지금 연경의 시장에서 술을 파는 것도 또한 크고 작음에 따라 그릇을 달리 하며, ‘斤’과 ‘兩’으로써 차이를 둔다.】 또한 하나 라에서는 ‘殘’, 은나라에서는 ‘罍’, 주나라에서는 ‘爵’이라 했으니, 【『說文』에서 말했다.】 삼대에도 각각 다른 이름이었다. 또한 새 모양을 본뜬 것을 ‘爵’이라 했고, 六觚를 ‘觚’라 했으며,【梬子도 또한 六觚이니, ‘卣’로써 이름을 붙인 것이다.】 들짐승의 모양을 본뜬 것을 ‘罍’라 말했고, 罰酒를 ‘觥’이라 말했다.【饗舍에서 쓰는 것을 ‘觥’이라 일컬었는데, ‘觥’는 ‘觥’와 통한다.】 ‘彝’이란 ‘彝尊’이고, ‘罍’은 ‘雷尊’이며, ‘尊’은 큰 그릇이니, 지금 그 뜻을 함께 ‘蠡’으로 삼는 것이 옳겠다.³²⁾

32) 『雅言覺非』(『定本』 제5책, 107~108쪽). “東俗訓蒙, 酒只有蠡【與殘同】, 船只有篙【方言沙牙大】, 何以文矣. 〈周南·卷耳〉疏云, 一升曰爵, 二升曰觚, 三升曰卣, 四升曰角, 五升曰散. 字

「아언지하」에서 다산은 술잔을 뜻하는 다양한 한자를 예시로 간략히 언급하면서, 이를 ‘蠶’으로만 가르치는 현실의 교육을 개탄했다. 이에 비해 『아언각비』에서 그는 「아언지하」에서의 논지를 계승하되, 그 사례들을 다양한 문헌에서 채집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언지하」단계에서의 문제의식이 『아언각비』단계에서는 풍부한 고증에 기초한 언어학적 주장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아언지하」 16조목과 『아언각비』 ‘蜜炙’조목의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아언지하」에서 다산은 약초에서의 ‘酒炙’이나 ‘蜜炙’를 조선에서 즐겨 ‘酒炙’이나 ‘蜜炙’라고 칭함을 문제삼고는, 약초에 어찌 丹田과 關元이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아언각비』에서 보다 선명하고 논리적으로 개진되었다. 여기에서 다산은 ‘蜜炙’과 ‘醋炙’에서의 ‘炙’란 ‘굽다(燔)’의 뜻인데, 우리나라 의원들은 조사나 연구도 하지 않고 이를 ‘뜸(灸)’으로 잘못 알고 쓴다고 했다. 이어 약물에는 단전도 없고三里(땀구멍)도 없는데 어찌 뜸을 뜨겠느냐며, 언어적 오류에 기인한 잘못된 관행을 일갈했다.³³⁾

그런데 「아언지하」에서 피력되었던 견해가 『아언각비』로 계승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아언각비」 43번 조목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다산은 ‘頃’의 음은 ‘移’와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속들은 이를 ‘脫’로 잘못 읽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언각비』에서는 ‘頃’란 본래 그 음이 ‘頤’인데, 읽기를 ‘脫’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아언지하」 이후의 고증을 거

書云, 一升曰勺, 四升曰卮, 七升曰觥, 而杯與觴, 爲其總名. 雖諸說不同, 而其以大小異名則審矣【今燕市賣酒, 亦大小異器, 以斤兩爲差】. 又夏曰琖, 殷曰罍, 周曰爵【《說文》云】. 則三代各異名矣. 又象雀之形謂之爵, 六觚曰觥【梔子亦六觚, 卮所以名】. 象獸之形謂之罍, 罰酒曰觥【饗舍所用謂之觥, 觥與觥通】. 彝者, 彝尊也. 鬯者, 雷尊也. 尊者, 大器也. 今竝訓之爲蠶, 可乎.

33) 「아언지하」의 29조목의 경우에도 그 견해가 『아언각비』로 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치며 기왕의 견해가 바뀌었고, 수정된 주장을 용례와 함께 『아언각비』에 실었던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언지하」가 저술된 시점이다. 다산은 40조목에서 ‘巨竹’을 설명하면서, “내가 백운동 이씨의 죽원에서 보았는데, 그 크기가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余見白雲洞李氏竹園 其大有如此者].”라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다산은 백운동에 언제 처음 갔을까? 기록으로 확인되는 다산의 월출산 등반은 두 차례가 있었다. 먼저 『여유당전서』에는 음력 8월 17일에 월출산에 오른 뒤 그 감상을 담은 시가 있다.³⁴⁾ 연도는 밝히지 않았지만, 보은산방에 머물며 쓴 시의 뒤에 실린 것으로 보아 1806년임이 분명해 보인다. 시에서 다산은 마치 월출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과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다만 오가는 길에 인근의 백운동을 들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다산은 1812년 가을 제자들과 함께 월출산에 올랐다가 백운동에서 하루를 유숙했다. 이때 백운동의 12절경을 시로 읊어서 첩으로 남긴 것이 이른바 『백운첩白雲帖』이다. 다산은 그 첫 번째 절경을 옥관봉으로 꼽고 시를 직접 지었는데, 그 첫 부분에 지난날 월출산을 올랐을 때에 대한 소회를 남겨 놓았다.

내 예전 영산에 놀러와	我昔遊靈山
옷깃을 떨치며 절정까지 오르려 했지.	振衣凌絕頂
힘이 다하여 내려오지 못하고	力盡不能下
해지자 입은 옷이 너무 추웠네.	日落衣裳冷

34) 『與猶堂全書』詩集 제5권(『定本』제1책, 470쪽). 登月出山絕頂【八月十七日】.

사슴 가죽 깔개로 몸을 감싸고

裏身鹿皮韃

여러 시내 웅덩이를 건너왔다네.

九流度阨阱

시에서 다산은 그 언젠가 월출산에 올랐을 때의 감정과 상황을 진솔하게 묘사했다. 정상을 오르겠다는 의욕과는 달리 힘이 빠져 버렸고, 이내 해가 지자 냉기를 느낄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다. 이에 다산은 사슴가죽으로 된 깔개로 몸을 감싸고는 계곡의 웅덩이를 건너서 산을 내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다산은 이때 거처로 바로 가지 않고 백운동을 들렀던 것 같다. 위의 시나 그의 문집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강진 제자인 이시현의 시에³⁵⁾ 당시의 정황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날 소상옹[필자주: 정약옹]께서

往者菴上翁

사슴가죽 깔개를 두르고 웅덩이를 내려와

鹿韃下坑阱

저물녘 백운동에 들어오셔서

暮入白雲洞

구정봉에 오르지 못함을 한스러워 하셨지.

恨不窺九井

이 시는 이시현이 1812년에 다산이 썼던 「옥관봉」(12운)에 차운하여 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언젠가의 월출산 등반일을 소회하며 썼던 다산의 시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정약옹과 이시현이 추억했던 대상이 같았던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그날 저녁 다산이 백운동을 들렀으며, 백운동에 오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는 뒷이야기이다. 언제 인지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1812년 이전의 어느 날에 이미 다산은 백운

35) 『自怡先生集』 卷中, 詩, 次茶山玉版峰詩韻奉寄維桑并小序(『茶山學園 文獻集成』 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571~574쪽).

동에 들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 날이 ‘登月出山絶頂’을 썼던 날이라면, 다산이 백운동에 드나들었던 시점은 1806년 8월 17일까지로 당겨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저자표기인 ‘籀翁’와 더불어, 「아언지하」가 초당 이거 전에 저술되었을 하나의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신발굴 자료인 『고금비언』에 대한 후속 연구로, 전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백언시」와 「아언지하」를 그 이본들과의 비교하여 분석했다. 먼저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산은 장기 유배시절 이익의 『백언해』를 대상으로 4언 2구[8언]의 형식과 협운에 유의하여 수정했다. 이로써 저술된 것이 「백언시」인데, 여러 이본들 중에서 장서각본 「백언시」(이하 백언시A)는 (a)순서나 구성으로 볼 때 낙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 (b)이로써 추산되는 속담수가 124~127수로 나머지 백언시 계열보다 적다는 점, (c)장기에서 저술된 정황이 서문에 쓰여 있다는 점, (d)백언시A로부터 시작되는 자구의 계기적 변화 사례가 확인된다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장기 유배지에서 생산되었거나 혹은 그러한 저본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진으로 이배된 이후로도 다산은 조선속담을 증보 및 수정했고, 손암이 흑산도에서 채록한 수십 수의 속담[巽庵所輯]을 받았다. 그런데 『운곡잡저』 「백언시」(이하 백언시B), 『고금비언』 「백언시」(이하 백언시C), 『청관총서』 「백언시」(이하 백언시C)에는 모두 ‘손암소집’이 빠져 있으므로, 이들의 필사 혹은 저본의 생성 시기는 손암이 서세한 1816년 6월 6일이 전이 된다. 그중에서 백언시C는 (a)다산 수고본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 (b)저자가 ‘籀翁’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초당 이거 전에 생산되었거나 그러한 저본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언시B는 이강희가 다산 해배 직후 흑산도에 입도하여 다산의 저술을 필사한 것인데, 저본 당시부터 마지막 장이 낙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백언시D의 경우에도 저본 및 필사본의 생산 시점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손암소집’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백언시 계열의 선후관계는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필사 당시의 실수가 다수 보이며, 이로 인해 판본 간 변화의 계열성 및 규칙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언지하」이다. 장서각본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B)를 등사한 것이 규장각본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C)이며, 아언지하C의 영인본이 보유본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D)이다. 그리고 『고금비언』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A)와 아언지하B의 저자는 모두 ‘籀翁’로 표기되었으므로, 양자 혹은 그 저본은 초당으로 이거하기[1808년 봄]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아언지하A와 아언지하B의 관계이다. 아언지하A와 아언지하B는 분량이나 구성, 저자 표기 등이 같다는 점으로 볼 때, 유사한 단계에서 생성되었거나 그러한 판본을 저본으로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언지하A의 경우, 문장의 맥락이나 문법상 필수적인 자구의 누락이 다수 있으며, 그중 상당부분은 수정[첨입]되지 못한 채로 남겨졌다. 이에 비해 아언지하B에는 아언지하A에서의 누락이나 수정이 대부분 본문에 바르게 기술되었다. 아울러 2건의 지엽적인 글자 누락을 제외하고는 내용상 수정이나 오류가 없으며, 『아언각비』와의 유사성도 높다. 이로써 보건대 아언지하A가 아언지하B보다 먼저 생성된 필사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아언지하B의 저본과 아언지하A의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언지하B가 아언지하A를 등사한 것이 아님은 확실하지만, 아언지하A를 저본으로 하되 여타의 판본과 대조하며 아언지하B를 생산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언지하」는 1806년 가을부터 초당 이거 이전 사이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자표기가 ‘籀翁’으로 되어 있다는 점, 다산이 1806년에 월출산 등반 후 하산하며 백운동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언지하」에 다산이 백운동에 출입했던 기록이 전한다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한편 다산은 「아언지하」를 저술한 뒤로도 일상의 언어 오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기서술된 항목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었는데, 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언지하」에서 『아언각비』로 전승된 39개의 항목이다. 그 면면에는 풍부한 고증을 통해 「아언지하」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정연한 학술적 주장으로 다듬었던, 또한 이전의 오류를 수정해서 실었던 다산의 학술적 경로가 확인된다.

이처럼 유배기에서부터 다산은 ‘중국속담’, ‘조선속담’, ‘우리말의 문자적 오류’를 각각 수집하고, 이들을 「고금비언」, 「백언시」, 「아언지하」라는 독립된 저술로 정리하고 있었다. 한동안 이와 같은 구도를 유지한 채 각각을 보완해오던 다산은, 해배 이후 이들을 속담집과 어휘집으로 재편할 계획을 하게 되었다. 이에 「고금비언」과 「백언시」를 통합하고 수정 및 증보하여 『이담속찬』을, 「아언지하」는 대거 증보 및 재편하여 『아언각비』를 저술했다.

이와 같은 경과에서 볼 때 『고금비언』은 언어생활에 대한 다산의 학적 관심이 유배기 동안 축적되어왔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이 「고금비언」, 「백언시」, 「아언지하」이라는 3개의 단편으로 지속 및 보완되었으며, 해배 이후 최종적으로 『이담속찬』과 『아언각비』로 수렴되었음을 보

여주는 과도기적 저작이다. 아울러 원전 자구의 준수, 협운, 그리고 자의의 엄밀한 고증 등이 『고금비언』과 전후 저작들 사이에 일관되게 저류하던 주요한 원칙이었음도 확인되었다.

(논문투고일 2021년 9월 24일, 심사확정일 2021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8일)

참고문헌

원전

『(가제)古今鄙諺』(다산박물관 소장)

『采葩遺意』(연세대 국학자료실 소장)

『百諺詩』(『청관총서』, 연세대 소장)

『自怡先生集』(『茶山學團 文獻集成』 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百諺詩』(『雲谷雜稿』 권2(『茶山學團 文獻集成』 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雅言指瑕』(『여유당집』, 규11894)

『雅言指瑕』(『여유당전서보유』 2, 경인문화사)

단행본

송재소 역, 『다산의 한평생』, 창비, 2014.

임미정, 『이담속찬 연구』, 보고사, 2017.

이은진, 『李時憲의 『自怡先生集』 詩 譯註』,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논문

김언중, 「『여유당전서보유』의 저작별 진위문제에 대해여(상)」, 『다산학』 9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6.

김영호, 「『與猶堂全書』의 텍스트 검토」, 『丁茶山 研究의 現況』, 민음사, 1983.

노경희, 「다산 저술 고본의 성격과 자료 전승 현황」, 『다산학』 17호, 다산
학술문화재단, 2010.

_____, 「『雅言覺非』의 이본과 유전」, 『다산학』 23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_____, 「1910년대 조선총독부 參事官室의 謄寫本 제작과 전승」, 『대동한
문학』 55집, 대동한문학회, 2018.

박철상, 「다산 저작 고본의 제문제」, 『다산학』 23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윤석호, 「가장본 『경세유표』의 서지적 분석(1)」, 『다산학』 37호, 다산학
술문화재단, 2020.

_____, 「신발굴 자료 『古今鄙諺』의 분석(1) —〈古今鄙諺〉을 중심으로」,
『다산학』 38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1.

국문요약

본고는 신발굴 자료인 『고금비언』에 대한 후속 분석으로, 전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백언시」와 「아언지하」를 그 이본들과 비교했다. 먼저 「백언시」의 경우, 다산은 장기 유배시절 이익의 『백언해』를 대상으로 4언 2구[8언]와 협운에 유의하여 수정했는데, 장서각본 「백언시」(이하 백언시A)는 이 단계의 결과물로 추정된다. 강진으로 이배된 이후로도 다산은 조선속담을 증보 및 수정했고, 손암이 흑산도에서 채록한 수십 수의 속담[巽庵所輯]을 받았다. 『운곡잡저』 「백언시」(이하 백언시B), 『고금비언』 「백언시」(이하 백언시C), 『청관총서』 「백언시」(이하 백언시C)에는 모두 ‘손암소집’이 빠져 있으므로, 필사 혹은 저본의 생산된 시점은 늦어도 손암이 서세한 1816년 6월 6일 이전이다. 그중에서 백언시C는 (a) 다산 수고본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 (b)저자가 ‘籀翁’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초당 이거 전에 생산된 판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아언지하」이다. 장서각본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B)를 등사한 것이 규장각본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C)이며, 아언지하C의 영인본이 보유본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D)임은 분명하다. 한편 『고금비언』 「아언지하」(이하 아언지하A)와 아언지하B의 저자는 모두 ‘籀翁’로 표기되었으므로, 양자는 초당으로 이거하기[1808년 봄]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언지하A는 아언지하B보다 완성도가 낮으며, 본문의 내용과 맥락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사된 정황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아언지하A가 아언지하B보다 먼저 생성된 판본임

을 추정케 하는 근거들이다. 다산은 「아언지하」를 저술한 뒤로도 일상의 언어 오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기서술된 항목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언지하」의 47개 조목 중에서 『아언각비』로 전승된 39개이다.

유배기에서부터 다산은 ‘중국속담’, ‘조선속담’, ‘우리말의 오류’를 각각 수집하고, 이들을 「고금비언」, 「백언시」, 「아언지하」라는 독립된 저술로 정리하고 있었다. 한동안 이와 같은 구도를 유지한 채 각각을 보완해오던 다산은, 해배 이후 이들을 속담집과 어휘집으로 재편할 계획을 하게 되었다. 이에 「고금비언」과 「백언시」를 통합하고 수정 및 증보하여 『이담속찬』을, 「아언지하」를 대거 증보 및 재편하고 『혼돈록』과 합하여 『아언각비』를 저술했다. 이로써 볼 때 『고금비언』은 언어생활에 대한 다산의 학적 관심이 유배기 동안 축적되어왔음을, 그리고 그것이 「고금비언」, 「백언시」, 「아언지하」이라는 3개의 단편으로 보완되다가 해배 이후 『이담속찬』과 『아언각비』이라는 두 저서로 재편 및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과도기적 저작이다.

주제어 | 『고금비언』, 「고금비언」, 「백언시」, 「아언지하」, 『아언각비』, 『이담속찬』.

Abstract

The Analysis on Newly Found *Gogeu**m** bieon*(『古今鄙諺』)(2) — Focusing on “Baekeonsi”(『百諺詩』) and “Aheon jiha”(『雅言指瑕』), Two of Three Chapters of *Gogeu**m** bieon*(『古今鄙諺』)

Yoon Suk-ho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i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is a follow-up analysis of *Gogeu**m** bieon*(『古今鄙諺』), comparing “Baekeonsi”(『百諺詩』) and “Aheon jiha”(『雅言指瑕』), which were not previously covered, with other versions.

In the case of “Baekeonsi”(『百諺詩』), Tasan Jeong Yak-yong in Jangki revised “Baekeonsi”(『百諺詩』) written by Seongho Lee Ik. “Baekeonsi”(『百諺詩』)(the collection of Jangseogak) is presumed to be the result of this process. Tasan added and revised Joseon proverbs even after being moved to Gangjin, and received dozens of proverbs recorded by Sonam Jeong Yak-jeon from Heuksando Island. The rest of the versions of “Baekeonsi”(『百諺詩』) did not contain the proverb that Sonam gave to Tasan, so the year of production was before 1816. In particular, “Baekeonsi”(『百諺詩』)(contained in *Gogeu**m** bieon*(『古今鄙諺』)) appears to be a version produced before Tasan moved to Chodang.

Next is “Aheon jiha”(『雅言指瑕』). It is clear that “Aheon jiha”(『雅

言指瑕』(the collection of Kyujanggak) is a manuscript of “Aheon jiha”(「雅言指瑕』)(the collection of Jangseogak), and “Aheon jiha”(「雅言指瑕』)(contained in Addendum to the Complete Writings of Yeoyudang) is a photoprint of “Aheon jiha”(「雅言指瑕』)(the collection of Kyujanggak). Meanwhile, “Aheon jiha”(「雅言指瑕』)(contained in *Gogeu**m** bieon*(『古今鄙諺』)) and “Aheon jiha”(「雅言指瑕』)(the collection of Jangseogak) appear to have been created before Tasan moved to Chodang(spring of 1808). In particular, “Aheon jiha”(「雅言指瑕』)(contained in *Gogeu**m** bieon*(『古今鄙諺』)) is less complete than “Aheon jiha”(「雅言指瑕』)(the collection of Jangseogak), and the transcribed situation is confirmed without sufficiently digesting the content and context of the text, which is the basis for estimating that “Aheon jiha”(「雅言指瑕』)(contained in *Gogeu**m** bieon*(『古今鄙諺』)) was created before “Aheon jiha”(「雅言指瑕』)(the collection of Jangseogak).

To sum up, *Gogeu**m** bieon*(『古今鄙諺』) is a transitional work that shows that Tasan’s academic interest in language has accumulated during exile, and that it has been supplemented with three short stories, “Gogeu**m** bieon”(『古今鄙諺』), “Baekeonsi”(「百諺詩』) and “Aheon Jiha”(「雅言指瑕』), and has been reorganized and expanded into two books, *Idam sokchan*(『耳談續纂』) and *Aheon kakbi*(『雅言覺非』) even after exile.

Key Words | Tasan Jeong Yak-yong, *Gogeu**m** bieon*(『古今鄙諺』), “Gogeu**m** bieon”(『古今鄙諺』), “Baekeonsi”(「百諺詩』), “Aheon jiha”(「雅言指瑕』), *Aheon kakbi*(『雅言覺非』), *Idam sokchan*(『耳談續纂』).